

태권도 교본의 시대별 비교분석 연구보고서

(태권도 교본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2022.09

책임연구원	엄 재 영
공동연구원	서 성 원
공동연구원	신 광 철



1958



1965



1969



1972



태권도진흥재단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국립태권도박물관
National Taekwondo Museum

제 출 물

태권도 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본 연구서를 『태권도교본의 시대별 비교분석 연구보고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엄재영

2022. 09.

요 약

태권도교본 시대별 비교분석

(태권도교본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교본이란 “학교에서 교과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을 일컫는다. 즉 교본은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교본 역시 시대별로 기술과 용어, 지식과 철학 등이 담겨있는 교과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태권도가 갖는 기술변화, 용어의 변천과정, 역사적 배경, 정체성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선행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1950년대부터 『당수도교본』(황기, 1958), 『태수도교본』(이교윤, 1965),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의 4권의 책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수도교본』, 『태수도교본』은 한국전쟁과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와 맞물려 특별한 연구보다는 중국무술이나 가라테의 기술들을 차용한 결과물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당시 불안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추정된다.

1950~60년대 말까지 태권도역사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무술, 중국무술에서 유래 등 간단하게 서술되었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태권도교본 품세편』에서는 고대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사로 이루어지는 방대한 역사서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태권도가 우리 한국 전통무예임을 주장하려는 노력으로 추정된다.

각 교본의 시대별 기술 개수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당수도교본』 기술의 총 개수는 76개, 『태수도교본』 기술의 총 개수는 65개, 『태권도교범』 기술의 총 개수는 52개로 약간 줄어들었다. 하지만 『태권도교본 품세편』, 기술의 개수는 91개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본기술을 세분화 하고 기술체계를 체계화시키는 동시에 모든 명칭을 한글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교본의 공통된 특징은 태권도는 일격필살로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지만 신체단련만이 그 본질이 아니라 정신수양을 함께 단련하는 심신단련이 최고의 수련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각각의 태권도교본에서 사용되는 기술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술의 변화는 1960년대 초반부터 급소 앞에서 끊어주는 간접타격 수련방식에서 보호구를 입고 직접타격을 사용한 무예스포츠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주제어 : 당수도교본, 태수도교본, 태권도교범, 태권도교본 품세편, 태권도역사.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진

■ 연구수행기관

책임연구기관 :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 참여 연구진

- 책임연구원 엄재영(전 북경체육대학교)
- 공동연구원 서성원(태권박스 미디어)
 신광철(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 감 수 김지혁(광주대학교)
 양택진(태권도신문)
- 보조연구원 권규리(국기원)

이용자 도움말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태권도진흥재단의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숫자는 각 동작을 하나의 기술로 반영하였고 중복되는 기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의 기술명칭은 최대한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했지만 상황에 따라 현재의 기술용어를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보고서 포괄 범위

- 본 보고서는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하고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가 수행한 ‘태권도교본 시대별 비교분석연구’ 용역 수행 결과로 총 4권의 태권도교본 기술을 비교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 『당수도교본』(황기, 1958), 『태수도교본』(이교윤, 1965),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을 시대별로 비교해 태권도 기술, 유래, 정의, 명칭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 분석했습니다.
- 이번 연구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주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방법인 문헌연구를 선택하였으며, 문헌연구는 일반적으로 논문을 포함한 보고서, 출판물 등을 말하며, 연구 상황과 출판물 저자의 관계에 따라서 기본 자료 혹은 1차 자료(primary source)와 보조자료 혹은 2차 자료(secondary source)로 구분하고, 문헌자료가 부족하거나 논의가 불가능한 여러 시대적 배경과 사적 논리는 태권도전문가들의 회의, 면담 등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했으나 그 신뢰도를 추정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1) 태권도교본 비교분석의 내적 요구	2
2) 태권도교본 비교분석의 외적 요구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제한점	6
II .연구방법	7
1. 연구절차 및 설계	7
2.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8
2) 전문가 회의	8
3) 연구 추진 절차	10
III . 연구결과 및 심층 분석	13
1. 당수도교본 분석(황기, 1958)	13
1) 저자 소개	16
2) 당수도의 유래	17
3) 내용 체계	18
4) 발간의 의의	20
5) 당수도 수련의 목적	21
6) 기술의 분석	21

(1) 형의 종류	21
(2) 사용부위 및 명칭	23
7) 대련법	28
(1) 대련의 의의	28
(2) 대련의 8대 요소	29
(3) 단련 실시법	29
(4) 수식 대련법	29
(5) 1수식 복식법	30
(6) 자유대련법	30
8) 단련법	30
(1) 단련법의 개론	30
9) 보신법(호신술)	32
(1) 보신법의 개론	32
10) 도수방어법	33
11) 특수방어법	34
(1) 앉아서 방어하는 방법	34
(2) 누워서 방어하는 방법	35
(3) 쓰러지며 방어하는 방법	35
(4) 곤봉을 방어하는 방법	36
(5) 장봉을 방어하는 방법	36
(6) 단도공격을 방어하는 법	37
(7) 권총공격을 방어하는 법	37
(8) 총검 공격을 방어하는 법	38
12) 당수도교본 소결론	39

2.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분석(이교윤, 1965)

1) 저자 소개	40
2) 태수도의 의의	45
(1) 태수도의 정의와 사적고찰	45

(2) 태수도의 특징과 수련목적	46
3) 태권도의 기초 지식	47
(1) 태권도의 조직(사용부위)	48
4) 각종 단련법	49
5) 단련법	50
6) 기식법(氣息法)	51
7) 형론	52
(1) 형의 정의	52
(2) 형의 종류	52
8) 수련상의 유의점	53
9) 형(型)의 해설	53
10) 대련(對鍊), 호신술론(護身術論)	54
(1) 대련의 의의	54
(2) 대련 시 유의사항	54
11) 대련의 종류	55
12) 대련의 실제(實際)	55
(1) 삼진대련	55
(2) 삼일대련	55
(3) 자유대련	55
13) 호신술론(護身術論)	56
(1) 호신술의 의의(意義)	56
(2) 호신술의 실제(實際)	56
14) 인체급소(人體急所)	57
15) 태수도 경기규정(競技規定)	58
16) 태수도교본의 소결론	58
 3. 태권도교범 분석(이원국, 1969)	60
1) 저자 소개	60

2) 태권도의 의의와 정신	66
3) 태권도의 유래	67
4) 태권도의 특징과 가치	67
5) 태권도의 술(術)과 도(道)	68
6) 태권도와 예의	68
7) 태권도 수련상의 주요점	68
8) 태권도의 조직(사용부위)	68
9) 기본	71
10) 형(型)의 의의	71
11) 형(型)의 종류	72
12) 대련의 의의	73
13) 대련의 종류	73
14) 단련구와 단련법	73
15) 인체의 급소	74
16) 대한태권도협회 제정형(부록)	74
17) 태권도교범의 소결론	75
 4. 태권도교본 품세편 분석(대한태권도협회, 1972)	7
1) 저자 소개	77
2) 태권도의 정의	83
(1) 태권도의 정신적 의의(내적인 의의)	84
(2) 태권도의 체육적 가치성(외적인 의의)	84
3) 태권도의 발생 과정과 형성	84
(1) 고구려 각저총과 무용총 벽화에 나타난 태권도 원형의 실증	84
(2) 신라시대의 화랑과 태권도의 실증	85
(3) 백제의 무예	85
(4) 고려시대의 수박희	85
(5) 이조(조선)시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85

(6) 태권도에 필요한 역학적 풀이	85
4) 기본동작, 특수동작	86
5) 품세의 종류	88
6) 지도상 유의점	89
7) 대한태권도협회 예의규범	90
8) 대한태권도협회 규약(規約)	91
9) 태권도교본품세편의 소결론	91
 IV. 결론	94
 V. 기대 효과	97
 VI. 향후 추진 계획	98
 참고문헌	99

표 목차

표 1. 태권도교본 비교분석의 내적 요구	3
표 2. 태권도교본 비교분석의 외적 요구	4
표 3. 참고문헌	8
표 4. 1차 전문가회의 개요	9
표 5. 2차 전문가회의 개요	10
표 6. 연구 추진절차	12
표 7. 서적의 발행 서식 정보	13
표 8. 당수도교본의 목차	18
표 9. 당수도교본의 내용 체계 원문	18
표 10. 당수도교본 형 종류	22
표 11. 당수도 교본의 기술명칭	27
표 12. 명칭 기술의 개수.	28
표 13. 단련시 중요사항 요약	31
표 14. 도수방어법 종류	33
표 15. 앉아서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34
표 16. 누워서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35
표 17. 쓰러지며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35
표 18. 곤봉을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36
표 19. 장봉을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36
표 20. 단도(短刀)공격을 방어하는 법의 종류	37
표 21. 권총공격을 방어하는 법의 종류	37
표 22. 총검 공격을 방어하는 법	38
표 23. 호신법의 종류와 개수	38
표 24. 서적의 발행 서식 정보	45
표 25. 태수도교본 기술의 종류	48

표 26. 명칭 기술의 개수	49
표 27. 태수도교본 형의 종류(경민형)	52
표 28. 태수도교본 형의 종류(둔중형)	53
표 29. 태수도교본 형의 종류와 동작 수	54
표 30. 태수도교본 호신술종류(명칭이 없어 요약함)	57
표 31. 태수도교본 체급분류	58
표 32. 태수도교본 사용부위와 기술의 종류	59
표 33. 서적의 발행 서식 정보	61
표 34. 태권도교범의 기술 종류	70
표 35. 태권도교범 기본 기술	71
표 36. 태권도교범 형의 종류(준비, 바로자세 포함하지 않음)	72
표 37. 태권도교범 대련의 종류	73
표 38. 태권도교범 기술의 종류	76
표 39. 서적의 발행 서식 정보	77
표 40. 태권도교본 품세편 기술의 종류	91
표 41. 태권도교본 품세편 품세의 종류	91
표 42. 태권도교본 품세편 예의규범의 종류	92
표 43. 태권도교본 품세편 공방기술의 개수	94
표 44. 교본들의 기술의 개수	95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추진절차	11
그림 2. 황기 관장 수련모습	14
그림 3. 빗차기. 무덕관 2대 관장 황현철	16
그림 4. 수상구호법	20
그림 5. 당수도교본 목차	21
그림 6. 등발	23
그림 7. 사진 발 잡아 막기	25
그림 8. 최하단 수도막기	25
그림 9. 뒷차기 자세	26
그림 10. 단련대 만드는 방법	32
그림 11. 1969년 5월 3일 대통령기 입상-이교윤	40
그림 12. 연극배우 겸 성우 백금려를 지도하는 이교윤 관장	42
그림 13. 1970년대 한무관 김철환 우승-이교윤	44
그림 14. 단련대 만드는 방법 『태수도교본』 (1965)	50
그림 15. 단련대 방법(『태수도교본』 (1965)	51
그림 16. 이원국 관장 『태권도교범』 (1969)	62
그림 17. 1957년 경무대 상무관 앞에서 찍은 사진-엄운규(이원국의 제자) ..	64
그림 18. 일본 귀국환영사진	65
그림 19. 권고대 만드는 법(태권도교범, 1969)	74
그림 20. 태극 1,2형 연무선	75
그림 21. 1960년대 지도관 홍천 동계수련- 맨 앞쪽이 이종우 관장	79
그림 22. 1970년 품세지도자교육-이종우	82

I. 서론

1. 연구 필요성

2021년 12월 31일,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16년 만에 태권도교본 개정판을 발행해 전 세계에 배포하였다. 태권도교본은 전 세계 약 1억 명의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지침서로서 태권도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 및 기초 이론과 함께 수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기본기술, 품새, 겨루기, 격파, 시범 등)의 원리를 내용에 담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교본은 무도적 성격이 강한 태권도 기술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하였고, 무도스포츠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세계화에 성공하였는지를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역사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신자와 전민우(2019)는 “해방 이후 성장한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태권도의 초기기법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태권도계에서 전통기법을 논한다는 것은 여전히 소수자들만의 관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

이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는 본 과제를 통해 태권도 발생 이후 태권도 기술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간 발행되었던 시대별 태권도교본을 중심으로 공통점 및 차별성을 분석하는데 최종 목적을 두었다.

요컨대 교본이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을 일컫는다(국립국어원, 2022). 즉 교본은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누구나 배우기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의 기능을 띄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교본 역시 태권도 발전의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용어와 기술, 지식과 철학 등이 담겨있는 교과서의 기능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태권도인 역시 태권도가 갖는 역사적, 기술적, 철학적, 정체성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본 과제는 태권도교본의 시대별 분석을 통해 태권도의 기술적 정체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임신자, 전민우(2019). 전통태권도 기법체계구축을 위한 화수도교본과 태권도교본의 기법체계 비교 분석, 한국무예학회지. 13(3), p.32-33.

1) 태권도교본 비교분석의 내적 요구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태권도교본은 여러 형태로 변화를 꾀하며 발간되었다. 이 같은 교본의 개정은 태권도의 내·외적 발전과 함께 태권도가 세계화되는데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태권도의 학문적(지식) 성장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태권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 비해 정작 태권도 지침서라 할 수 있는 태권도교본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편향적인 연구 성과는 자칫 태권도 기술의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나 근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태권도의 근간과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교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그간 발행되었던 태권도교본 간 상이한 용어와 무분별한 기술의 나열은 태권도 지침서로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태권도의 기술적 정체성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72년에 발간된 『태권도교본 품세편』과 1987년 발간된 『태권도교본』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 발간되었던 태권도교본에서는 과연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권도교본으로 대표될 만한 태권도 지침서, 즉 태권도 수련을 위한 교과서로서 기능적 역할을 해내왔던 시대별 교본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내용체계, 정의, 의의, 용어의 변천과정 등을 분석하여 태권도교본의 변천과정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야만 태권도교본의 역사적 사실을 담보할 수 있으며, 태권도교본을 비교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향후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함축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관련 연구 부족	태권도역사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정작 태권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태권도교본에 관한 연구 부족
상이한 기술체계	태권도교본 간의 상이한 용어와 기술의 나열은 세계 속의 국기 태권도로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변천과정의 근거마련	1950년, 1960년, 1970년대별 태권도교본을 시대별로 내용체계, 태권도의 정의, 용어의 변천과정 등을 분석하여 태권도교본 변천과정의 근거 마련.
선행연구자료 필요	태권도교본의 역사성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태권도교본을 분석한 선행 연구 자료 부족.

표 1 태권도교본 비교분석의 내적 요구

2) 태권도교본 비교분석의 외적 요구

2019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염병 최고단계인 팬데믹을 선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태권도계는 물론 전 세계인들의 일상을 바꿔 놓았고, 태권도의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대유행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스포츠계도 이 전염병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작의 형식에 맞춰 선수 개인의 수련 성과를 평가하는 온라인 품새 대회가 생겨 침체되어 가는 태권도에 활력을 불어주는 동시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주고 있다.²⁾ 이렇게 전염병의 창궐로 태권도교본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태권도기술은 이미 책과 온라인에서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인 국기원 유튜브 채널³⁾을 통해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힘든 상

2) 권규리, 유정애(2022). 『태권도 선수의 온라인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우승 경험 탐색』 국기원 태권도연구, 2022, 제13권 제2호, p.11,12.

3) 국기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ukkiwonpr>).

황 속에서도 우리의 태권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임신자 외 2인(2019)은 “해방이후 역사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초기기법을 중심으로 변화되었거나 실제의 동작과 상이성이 있고 공통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⁴⁾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의 태권도를 해방 이후 기준으로 7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봤을 때 태권도 교본들 또한 시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태권도교본의 분석을 통해 치밀한 기술체계 구축과 온라인 세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다가오는 미래에도 무도스포츠로서 태권도만의 경쟁력을 갖추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과거 태권도교본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탄탄한 기술 콘텐츠와 역사적 배경의 구축, 교육콘텐츠로써 새로운 형태의 교본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전 세계 무도스포츠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태권도라는 무도스포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초석이 될 것이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태권도 교육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태권도 교육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
온라인 시장으로의 변화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바뀌는 유튜브채널 등의 활성화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교본 역사서가 필요.
전세계 무예스포츠 시장의 우위 확보	빠르게 전개되는 교육시장의 형태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표 2. 태권도교본 비교분석의 외적 요구

4) 임신자, 전민우, 정명규(2019). 전통태권도 기법체계구축을 위한화수도교본과 태권도교본의 기법체계 비교분석.한국무예학회 제13권 3호, p.32,33.

2. 연구의 목적

2015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린 러시아 첼라빈스크 트랙토르 아레나에서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과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의 시범이 끝난 뒤, 북한의 황호영 수석부총재는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하였다.

“ITF와 WTF(WT)의 뿌리는 하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번 시범을 통해 서로 어떤 기술로 발전했는지 잘 볼 수 있었고, 서로 다르게 발전한 태권도를 시범을 통해 현재 태권도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⁵⁾

인터뷰 내용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태권도 기술은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의 모습은 몸의 움직임의 통해 서로 다르게 발전된다는 말로 풀이된다. 즉 어떠한 분야(무술)이든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본이 있어야 하며, 기술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따라 기술의 내용체계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과제의 세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 번째, 태권도 기술의 변천과정을 통해 태권도 교본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통성을 확보하여 태권도를 배우는 많은 수련생들에게 태권도의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두 번째, 태권도교본의 시대별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의 변화, 태권도의 정의, 의의, 유래, 내용체계 등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태권도의 가치를 제고할 것이다.

세 번째,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최종결과물은 태권도전공자 및 관계자, 일선도장의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통일된 기술명칭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네 번째,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최종결과물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있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태권도 기술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기본기술, 품새(형)를 중심으로)

두 번째, 어떤 집필자에 의해 교본이 집필되었는가?

세 번째, 태권도교본의 정의, 의의, 유래 등을 시대별로 어떻게 제시했는가?

5) 박세현(2015). 『초창기 태권도교본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0권 제3호, p.128.

네 번째, 태권도교본의 내용 체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다섯 번째, 태권도교본의 기술 명칭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과제는 『당수도교본』(황기, 1958), 『태수도교본』(이교윤, 1965), 『태권도교본』(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 등 4권의 책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두었다.

첫 번째, 선정된 교본들이 태권도를 대표하는 자료이긴 하지만 시대별로 관(館)들이 다른 교본을 분석하기 때문에 기술의 배치나 변화 등 연구문제를 동일하게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 이외에는 기관의 공식적인 발간 도서가 아니므로 나머지 3권의 책들이 태권도계의 대표교본이라고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저자들이 각기 시대별로 각 유파를 대표하는 사범들이자 9대관의 창설자들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그 유파의 대표적인 교본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 문헌자료가 부족하거나 논의가 불가능하고 여러 시대적 배경과 사적 논리는 태권도전문가들의 회의, 면담 등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했으나 그 신뢰도를 추정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네 번째, 원문의 훼손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한 교차검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섯 번째, 갑권, 이권, 기마서기, 평립서기, 전족장, 한발로 서기, 역진공격, 등 각자의 교본마다 서로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관된 명칭으로 나타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으로 바꾸어 통일성을 갖추도록 노력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설계

본 연구는 ‘태권도교본의 시대별 비교분석’을 주제로 선정하여 태권도교본의 변천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 교본별 태권도기술의 변화, 교본의 변천과정, 태권도 명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로 발간된 『당수도교본』(황기, 1958), 『태수도교본』(이교운, 1965),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등 총 4권의 태권도교본을 토대로 시대적 구분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국기원에서 발간된 『태권도교본』(국기원, 2005)은 현재 태권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 참고문헌으로 삼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절차 및 설계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시대별로 발간된 총 4권의 교본인 『당수도교본』(황기, 1958), 『태수도교본』(이교운, 1965),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을 대상으로 문헌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 교본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앞서 언급한 4권의 교본을 분석한 후 기술의 변천과정, 태권도의 정의, 의의, 유래 등을 정밀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 중 문제점, 시대적 오류점, 개선방향 등은 향후 연구개발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처럼 시대별로 비교분석하여 태권도의 기술과 정의, 목적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전 세계의 태권도인이 보게 될 태권도교본 제작에 올바른 기술체계와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통일된 기술구성 확립과 표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태권도 용어와 기술위계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그간 발간되어진 태권도교본을 대상으로 시대적 구분에 따라 비교분석하고자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인 문헌연구를 채택하였으며, 문헌은 일반적으로 각종 출판물이나 연구보고서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로 발간된 태권도교본들을 토대로 시대적 구분에 따라 비교분석하고자 연구대상 문헌을 『당수도교본』(황기, 1958), 『태수도교본』(이교윤, 1965),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 4권의 발간된 태권도교본과 다른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한 내용의 선행 연구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객관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료인 『당수도교본』(황기, 1958), 『태수도교본』(이교윤, 1965),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을 중심으로 이용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시대적 구분에 따라 분석된 4권의 교본 자료들은 『태권도교본』(국기원, 2005)과 비교분석을 실행하여 각 시대별마다 쓰인 용어 및 교본 내용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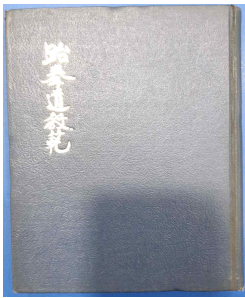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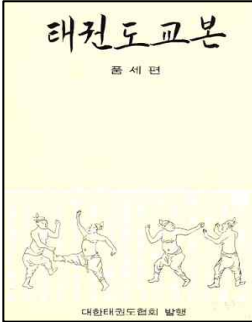
구분			
			
『당수도교본』 (황기 1958)	『태수도교본』 (이교윤 1965)	『태권도교범』 (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 (대한태권도협회 1972)

표 3. 참고문헌

2) 전문가 회의

본 연구물의 객관성과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중요한 내용이나 심도 있는 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전문가 회의 방식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회의는 총 2회 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 간의 접촉을 지양하면서도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 방안으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전문가회의의 구성인원은 태권도학과 전공교수 2명, 체육학 박사 1명 태권도전문가 2명, 태권도 전문기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물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1차 전문가 회의는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에 진행되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미 관련 자료들을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주고 받았으며, 본 연구의 개발과정, 목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2차 전문가회의는 개발된 연구물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 2022년 8월 12일에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내용점검과 신뢰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연구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했다.

일시	2022년 7월 21일
장소	온라인 zoom
전문가 명단	엄재영, 서성원, 신광철, 양택진, 김지혁, 권규리
회의 내용	• 본 연구의 목적 및 향후계획 설명 • 2차 전문가회의 진행 관련 논의

표 4. 1차 전문가회의 개요.

일시	2022년 8월 12일
장소	온라인 zoom.
전문가 명단	엄재영, 서성원, 신광철, 양택진, 김지혁, 권규리.
회의 내용	• 보고서 진행 상황 점검. ▶ 8월 27일까지 완성된 초안 최종점검. ▶ 8월 31일 오류부분 최종보완. • 보고서 관련 피드백 제시.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작업. ▶ 9/3 인쇄 작업. ▶ 9월 16일 보고서 제출.

표 5. 2차 전문가회의 개요.

3) 연구 추진 절차

본 연구는 7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태권도교본의 시대별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수집, 비교분석과 경기태권도의 용어 개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비교분석은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하였다. 둘째, 비교분석한 결과물을 취합한 후 전문위원 감수 및 수정 절차를 2주간 거쳤다. 셋째, 전문위원의 감수 및 수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태권도교본의 시대별 비교분석을 통한 보고서를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2주간 제작하였다. 넷째, 마지막 연구 단계로써 개발연구물 인쇄 및 연구결과 보고가 9월말에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 추진 절차를 표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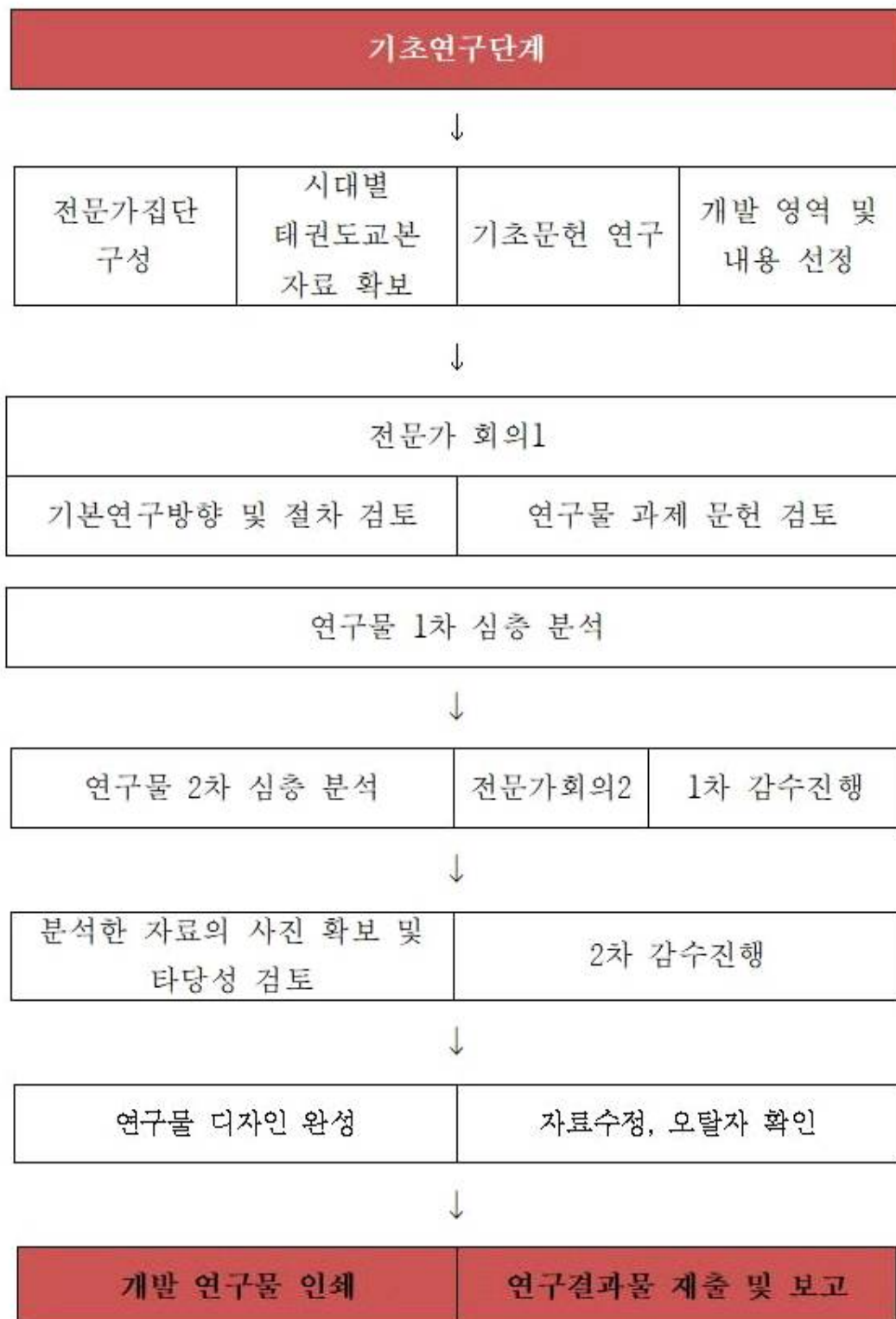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추진절차

개발내용	7월				8월				9월			
기초연구 단계	■											
태권도 교본의 자료 확보		■										
전문가 회의			■									
태권도교본의 시대별 심층 분석				■	■	■						
전문위원 감수 및 수정							■					
연구물 타당성확보								■				
자료수정, 오탈자 확인 및 연구물 디자인 완성									■			
개발연구물 인쇄										■		
연구결과물 제출 및 보고											■	

표 6. 연구 추진절차

Ⅲ. 연구결과 및 심층분석

1. 『당수도교본』(황기黃琦, 1958)의 분석

1) 저자의 소개

현대 태권도의 원류인 5대 기간도장 중 하나인 무덕관의 창설자 황기(1914~2002) 관장의 『당수도교본』(1958)은 태권도가 전국으로 알려지기 전, 태권도기술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책 중 하나이다. 당수도교본은 359p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記述)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발행일은 1958년 7월 30일이다.

구분	내용
제목	당수도교본
인쇄	단기 4291년 7월 25일(1958년 7월25일)
발행	단기 4291년 7월 30일(1958년 7월30일)
가격	2,700원
발행처	계량문화사
페이지 수	359p

표 7. 서적의 발행 서식 정보

무덕관의 창설자 황기 관장은 『화수도 교본』(1949년), 『당수도교본』(1958년), 『수박도 대감』(1970년), 『무도철학』(1993년) 등을 집필한 빼어난 무술가였으며, 무덕관은 5대 기간도장 중 관세(館勢)가 가장 컸다⁶⁾.

무덕관의 창설자 황기 관장은 1914년 11월 9일 경기도 장단군 태생으로 1935년 3월 1일 경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5월 남만주(南滿洲) 철도국에 근무하면서 1936년 만주 길림 용정시에 위치한 조양천역에서 근무할 때 우연히 무술가 양

6) 무카스 컬럼(2020). 무덕관 창시자 황기의 무예경력은?, 2020. 07. 22. <https://mookas.com/news/17554>

국진(楊麴震) 선생에게 직장동료인 박효필과 함께 조양천시의 변두리에 있는 그의 집에서 태극권과 십팔기, 국술(國術) 등을 배웠다고 한다.⁷⁾⁸⁾

1937년 8월 황기 관장은 서울로 돌아왔으며, 1941년 다시 만주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양국진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림 2 황기 관장 수련모습⁹⁾

황기 관장은 철도국 내에서 동료와 직장인들에게 중국무술의 세법(勢法)과 보법(步法)을 가르치면서 무예교습을 시작하였고, 1945년 11월 9일 해방 직후 서울 용산역 부근의 운수부(교통부) 청사에서 무덕관 창설과 교통부 당수도부를 창설하고 초대 관장과 부장으로 취임했다¹⁰⁾. 당시 수련생들은 관번 1번인 김운창을 비롯해 최희석, 유화영, 남삼현, 김인석, 이복성, 황진태, 원용범, 정창영, 이강익, 홍종수 등

7) 이호성(2007). 『한국무술 미대륙 정복하다』.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p.65-66.

8) 김영선(2018). 『현대 태권도의 원류, '오대관'의 형성과 사적(史的) 의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5,66.

9) 사진출처 : 수박도 무덕관.

10) 황기(1970). 『수박도 대감』. 한우리. p.687.

결출한 제자들을 길러냈다. 이들은 대부분 철도국 직원이었는데 홍종수와 지상섭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전쟁 중에 부산에 내려간 김인석은 경남지역, 남삼현 임명순은 대전 및 충남북 지역, 오용균은 전북지역, 박용화는 인천, 김창진은 전남, 박영진은 강원도에 세력을 뻗었다.¹¹⁾

관원들은 대부분 철도국 직원이었으며, 철도국을 통해 각 지방의 기차역 창고에 도장을 개관하면서 세력을 넓혀 나가 ‘철도국 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¹²⁾

철도 서울 공작장¹³⁾은 1984년 2월 변경된 서울철도차량정비창의 옛 이름으로 주요업무는 철도차량과 철도용기재의 제조, 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1947년 6월 5일에는 철도 서울 당수도부가 신설되었다. 이후 황기 관장은 해방 후 1949년 국내 최초로 『화수도교본』을 집필하고 보급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약 1년 5개월간 『화수도교본』의 판매가 중단되었고, 1951년 11월 부산 초량동에서 무덕관 중앙본관을 재발족하고 수련을 이어갔다. 1953년에는 ‘대한당수도협회’를 설립하였고, 경찰전문학교 강당에서 당수도 연무회 개최, 1955년 서울 동작동 서울역 부근에 무덕관 중앙본관을 새로이 개관하면서 그 해 전국에 9개의 지관(支館)을 개관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 한·중 친선 국제 당수도대회를 명동 시공관에서 개최하면서 중국과 교류하였다.¹⁴⁾

황기 관장은 해방 이후 세법, 보법, 연법 등 기본적인 수련에 집중했는데 이 당시 담퇴¹²로, 태극권을 배웠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수박도대감』에는 소림장권의 형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박도 대감에는 각종 형의 준비자세 동작이 실려 있다.¹⁵⁾

황기 관장은 1958년 7월 『화수도교본』의 증보판인 『당수도교본』의 집필 이유를 이렇게 썼다.

“해방 전부터 택견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으나 여의치 못했으나 해방을 맞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쓸 수 있었는데 택견법과 중국의 십팔기법(국술), 오끼나와 가라테 등에 대한 다소나마 지식과 기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버금가는 것을 찾고자 집필한 것이 화랑도를 택하였고 이에 대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10년간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아직까지 인식의 부족으로 일부 당수도에 오해가 있고 앞으로 당수도를 배우는 수련자들에게 이 책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

11) 서성원(2007). 『태권도 현대사와 길동무하다』. 서울. 상아기획. p.34.

12) 서성렬(2012). 『무덕관은 통합하여야 한다』. 초판, 동양비즈니스 품(주). pp. 18~21.

13) 철도 서울 공작장은 철도차량 정비, 생산 기능, 현재는 수도권 철도 차량정비단(용산차량정비창)

14) 황기(1992). 『한국전통무도 수박도(手搏道)』. 사단법인 대한수박도협회. p.424.

15) 허인욱(2008). 『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형성사』.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p.31.

주고 싶어 이 책을 집필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⁶⁾”

당시 한국의 고유무예를 당수도교본에 접목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수도라는 일본식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고심하던 중 1956년 체육학자인 서울대학교 나현성 교수(1916~1990)를 통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무예도보통지』를 접하고 연구하여 수련하면서 1960년 수박도(手搏道)로 개명하였고 단체명도 대한당수도협회를 대한수박도회로 변경하였다.”¹⁷⁾



그림 3. 빗차기(무덕관 2대 관장 황현철)¹⁸⁾

1960년 5월 23일 문교부에 대한수박도협회의 사단법인을 신청, 문화 제2570호로

16) 황기, (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인사말.

17) 태권도 역사 바로보기. 한국무예신문. 2011. 6. 16기사.

18) 사진출처 : 사진출처 : 수박도 무덕관.

인가 받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에서 모든 관(館)을 통합하라고 지시를 하였을 때 황기 관장은 반기를 들었다. 무덕관은 통합과와 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당시 대한태권도협회로서는 독자적인 대한수박도협회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이를 인정해 준다면 다른 유파에서도 별도의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⁹⁾

2) 당수도의 유래(태권도의 유래)²⁰⁾

지금부터 2,400년 전 천축국에서 명승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武帝)때 해로를 경유하여 관주로 와서 불교를 전파하지만 양무제가 불교를 탄압하자 위나라로 가서 고산 소림사에 의거 불제자들의 오랜 수도로 약해진 몸을 보안하기 위한 역근경이라고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즉 원시시대부터 우리의 자연발생적 공유물(公有物)로 생겨나 발전하였다고 역설한다.

또 한 예로 “900년쯤 중국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속국(屬國)으로 만들고 무기를 불허하였으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전신을 무기화 하는 법을 채택하여 발전시킨 것이 당수인지라 최근 일본에서 또 이 법을 채택 보급하여 이것을 당수도로 혹은 공수도로 칭하였다. 우리는 해방 전까지 불운한 환경이 있었고 당수도의 유래는 이 길을 지양하는 모든 당수도인이 유래학설에 확실한 이론, 과학적 근거 등을 연구하여 많은 수정과 유래설이 바뀌게 되길 바란다.”²¹⁾ 라고 썼다. 요약하면 당수도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왔다고 하지만 정확한 유래의 근거와 이론들이 부족하다. 다만 원시시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지만 일제강점기 때 많은 것을 잃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후학들이 꼭 연구하길 기대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허인욱(2008). 『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p.117-124.

20) 당수도의 명칭이 당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음, 따라서 ‘당수도를 태권도의 유래로 표기.

21)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 12.

당수도교본의 목차	
제1편	총론
제2편	당수도(화수도 또는 태견)의 기초지식
제3편	당수도 수련의 알아두어야 할 필요한 방식
제4편	당수도의 기본실기
제5편	대련법
제6편	단련법 1
제7편	보신법
제8편	지상 응급구호법
제9편	수상 구호법

표 8, 당수도교본의 목차

3) 내용 체계

이 책의 내용 체계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번호	내용체계
1	심신수련 및 보신에 대한 대중화에 중점을 둔 것.
2	가능한 한 초보자로서 습득하기 쉽고 전문 또는 이론 면을 떠나서 보편적이고 활동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
3	당수도에 있어서는 초보자로부터 2, 3단 정도 즉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교본으로 엮은 것.
4	보신법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였다는 것.

표 9. 당수도교본의 내용 체계 원문

위의 내용 체계를 요약하면 “심신수련 및 보신에 대한 대중화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초보자가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고, 초보자부터 2, 3단 정도 즉,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기 직전의 기술을 엮은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무도를 닦는 자는 익숙할수록 ‘활법’ (구해내는 기술)을 알아야 하므로 온전한 무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활법’ 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보신법(호신술)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되어 있다. 실제 활법의 내용은 지상구호법과 수상구호(안전)법으로 생존의 본질을 위해 취급하였고 수상구호법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뚜렷이 공개발표 된 사실은 이것이 최초 일 것이다.”²²⁾ 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태권도의 활법과는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950년대 말은 전쟁이 나은 상처를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북반구인 대한민국의 6~8월은 우기에 속한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시기에 내리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며, 황기 관장은 당수도 기술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시대환경을 반영해 총검에 대한 호신기법과 함께 지상구호법과 수상구호(안전)법 등을 수록해 독자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전달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2)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2 요약.

제 9 편 수상 구호법(水上救護<安全>法)	(315)
제 1 장 개 론	(315)
제 2 장 발달의 경유(經由) 약기	(316)
제 3 장 수상안전법과 수영(水泳)과의 관계	(317)
제 4 장 수영법의 종류 및 해설	(318)
제 5 장 수영할 때의 주의사항	(321)
제 1 절 물에 들어가기 전의 주의사항	(321)
제 2 절 수영할 때의 주의사항	(323)
제 3 절 물에서 나온 후의 주의사항	(323)
제 6 장 물에 빠진 사람에 접근(接近)하는 방법	(324)
제 1 절 뒤에서 접근하는 방법	(324)
제 2 절 앞에서 접근하는 방법	(325)
제 7 장 익자에게 붙잡혔을 때 푸는 방법	(327)
제 1 절 앞에서 익자(溺者)가 잡으려고 달려들 경우	(327)
제 2 절 앞에서 익자(溺者)가 한쪽손목을 잡았을 경우	(328)
제 3 절 앞에서 익자(溺者)에게 한쪽손을 양수로 잡혔을 경우	(328)
제 4 절 앞에서 익자(溺者)에게 두손을 양수로 잡혔을 경우	(329)
제 5 절 앞에서 익자(溺者)가 머리카락이나 상체를	

그림 4. 수상구호법²³⁾

4) 발간의 의의

총론에서 발간의 의의(意義)를 보면 인간의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을 재인식하며 사회발전과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자는데 그 의의(意義)가 있다고 보았다.²⁴⁾ 우리나라의 독특한 화랑도, 택견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당수도에는 선수가 없음) 기본적인 념이라고 썼지만 선수가 없다는 의미는 중국무술이나 일본 가라테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모든 무술은 자기 방어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3) 황기, (1958). 『당수도교본』. p. ix.

24) 황기, (1958). 『당수도교본』. p. 1.

목 차	
제 1 편 총 론.....	(1)
제 1 장 발간 취지.....	(1)
제 2 장 화랑도의 유래 약기	(2)
제 3 장 화랑도의 특징	(2)
제 4 장 화랑도 개론.....	(3)
제 5 장 우리민족의 사명.....	(7)
제 6 장 청년의 본질과 사명	(8)
제 7 장 청년의 진로	(8)
제 2 편 당수도(화수도 또는 태권)의 기초지식.....	(10)
제 1 장 당수도를 수련하는 취지	(10)
제 2 장 당수도의 유래 약기	(11)
제 3 장 당수도 수련의 목적 및 특징	(13)
제 4 장 당수도는 기술치중보다 수도(修道)	(14)
제 5 장 당수도 수련상 주의사항	(14)
제 6 장 원형(原型)의 명칭과 종류	(18)
제 7 장 당수도장(唐手道場) 무덕관(武德館)의 소개	(21)
제 1 절 무덕관의 약사	(21)
제 2 절 무덕관의 원간(原幹)	(23)
제 3 절 무덕관의 십개 신조(十箇信條).....	(24)
제 4 절 무덕관의 정신수양상 5개요소 및 중점.....	(24)
제 5 절 무덕관의 체육향상상 5개요소 및 중점.....	(25)
제 6 절 무덕관의 장래	(25)
제 7 절 세명칭 제정에 대하여 (화수도—花手道)	(26)

그림 5. 당수도교본 목차²⁵⁾

5) 당수도 수련의 목적

“자연의 원칙 하에서 화랑도정신에 입각하여 합리적 균형발달을 위한 심신수련을 목적함” ²⁶⁾ 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당수도는 일권일축(一拳一蹴)의 필살기이므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선용을 하기 때문에 사도수련은 정신수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수공권(徒手空拳), 일권일축(一拳一蹴), 시종일관(始終一貫) 등의 근본적인 정신수련이 있는데 이 점도 공수도와 흡사하다.

6) 기술의 분석

(1) 형의 종류

이 교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型)인데, 형이야 말로 기술 부분의 모체가 되는 부분으로 모든 수련의 기본이 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25) 사진출처 : 황기(1958). 『당수도교본』. p. 11.

26) 황기, (1958). 『당수도교본』. p. 13.

황기 관장은 “형은 동작의 순서만 기억하여 움직이는데 그치지 말고 중심의 안정 또는 이동이라든가 정확한 시선, 그리고 연무선의 정확성 등을 기하여 형다운 살아있는 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⁷⁾ 라고 기술하였다. 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련 또한 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형의 유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의 박약한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며 다만 고래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칭하기 한다.”²⁸⁾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당시의 명칭과 종류를 볼 때 일본의 공수도와 중국무술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번호	기초형	뺑앙형 ²⁹⁾	나이한찌(내보진)		
1	1부	뺑앙 초단	나이한찌 초단	찢디	씨빠이(十八)
2	2부	뺑앙 2단	나이한찌 2단	전도	싼씨빠이(三十八)
3	3부	뺑앙 3단	나이한찌 3단	소림장권 (小林長拳)	빠지유린
4		뺑앙 4단		꾸상군 (公相君)	소전
5		뺑앙 5단		로하이	사이후아
6				보(步)	구르릉후아
7				지은	로하이(初段)
8				완시유	로하이2단
9				삼전	로하이3단
10				전장	얼씨쓰슈
11				씨산(十三)	윤슈
12				세시얀	담퇴
13					타이그권(太極)권(拳)
계	3	5	3	12	13
총 형의 개수 : 36					

표 10. 당수도교본 형 종류

27) 황기(1958). 『당수도교본』. 당수도 수련의 목적. p. 68.

28) 황기(1958). 『당수도교본』. 당수도 수련의 목적. p. 19.

형의 종류는 39개로 표기했지만 실제 당수도교본(1958)에서 다른 형은 기초1~3형, 뽕안(평안)1~5형, 밧사이, 나이한찌(내보진)1~3형 12개뿐이다.

(2) 사용부위 및 명칭

사용부위와 명칭은 모든 격투 책이 동일하게 정확한 명칭으로 통일되어야 모든 사람이 기술을 공유할 때 정확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이 당수도교본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태권도 명칭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을 적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에 사용되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했다.

〈표12〉에 나와 있듯이 손의 사용부위는 주먹, 갑권, 일지권(갑), 일지권(을), 권도, 집계손, 수도, 역수도, 관수, 일지관수, 이지관수, 손바닥 밑, 유권, 팔굽(갑), 팔굽(을) 등 15종류로 되어 있는데 갑권은 지금의 등주먹이고, 유권은 곰손처럼 쥐는 모양을 하고 있다.³⁰⁾

발의 사용부위는 6종류도 기술하였는데 앞발, 뒷발, 발바닥, 뒷발, 등발, 무릎이며 앞발은 ‘앞축’을 뜻하고, 등발은 ‘발등’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태권도가 경기화가 되기 전에도 발등을 공격부위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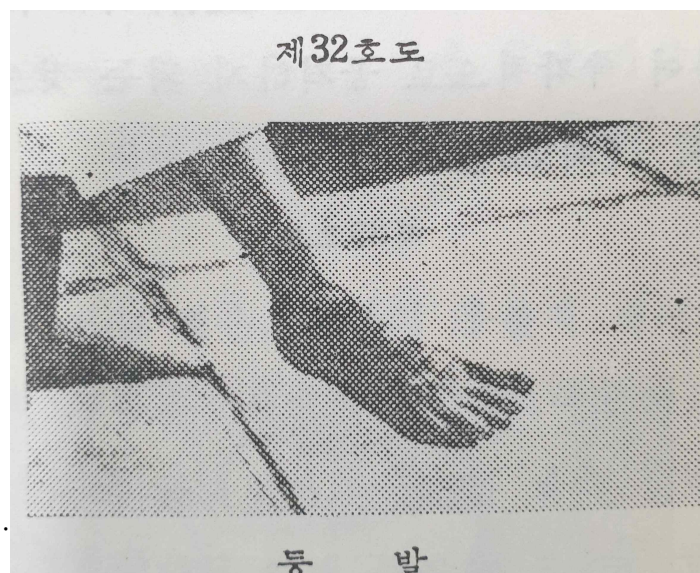


그림 6. 등발³¹⁾

29) 모든 형의 명칭은 일본발음을 한글로 그대로 표기하여 원문에 서술한 것으로 추정됨.

30) 손가락을 다 말아 쥐지 말고 마디의 중간 부분을 사용부위로 엄지손가락은 검지끝부분을 진 상태로 상대의 약한 급소부위를 공격하는 기술.(현재는 무덕관에서만 사용되는 기술)

31)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41.

서기는 준비 자세의 경우 평립 자세, 발 모아서기 자세, 전굴 자세, 후굴 자세, 사 고립 자세, 기마립 자세, 한발로 서기자세(잡), 한발로 서기(을), 한발로 서기(병), 교차립 자세 등 11종류로 되어 있다. 준비 자세는 두 주먹을 앞으로 모아 현재 『국기원교본』(국기원, 2005)의 준비자세와 동일하지만, 평립자세는 발을 약간 밖으로 벌려 서는 자세로 현재 편히 서기 자세와 동일하다. 한발로 서기자세(잡)는 발바닥을 반대편 무릎에 붙이는 자세이고, 한발로 서기자세(을)는 발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무릎 앞쪽에 위치하는 자세이며 한발로 서기자세(병)은 지금의 오금서기 자세와 동일하고, 교차립 자세는 지금의 꼬아서기 자세와 같다.

손 공격은 10종류로 중단공격법, 상단공격, 관수공격법, 팔굽공격법, 팔굽치기법,³²⁾ 틀어 중단공격법, 틀어 상단공격법³³⁾, 수도공격법, 횡진공격법³⁴⁾, 역진공격법³⁵⁾으로 되어 있다. 팔굽공격법과 수도공격법은 지금의 팔굽치기, 손날 공격과 동일하다.

손 방어는 18종류로 상단 막기법, 밖→안 막기법, 쌍수 상단막기법, 쌍수 하단막기법, 안→밖 막기법, 발 잡아 막기법, 틀어 밖→안 막기법, 틀어 안→밖 막기법, 중단 옆막기법, 후굽하단 막기법, 후굴 상단막기법, 후굴 쌍수 하단막기법, 상단 수도막기법, 하단 수도막기법, 최하단 막기법, 후굴양수옆막기법, 후굴 밖→안 막기법, 후굴 안→밖 막기법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발잡아 막기법과 최하단 막기법이 나오는데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 잡아 막기는 꼬아서기 자세로 양 손목을 모아 손바닥을 밑으로 향하게 해서 상대방의 앞차기 공격을 잡아내는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⁶⁾.

32) 팔굽공격법은 팔굽 돌려치기, 팔굽치기법은 팔굽 옆치기.

33) 틀어 중, 상단공격법은 현재 바로지르기와 동일.

34) 횡진공격법은 현재 옆 지르기와 동일.

35) 역진공격법은 현재 뒷굽이 바로지르기와 동일하다. 틀어 중, 상단공격법과 동작은 같지만 앞굽이와 뒷굽이 자세로 서기의 자세만 다를 뿐이다.

36)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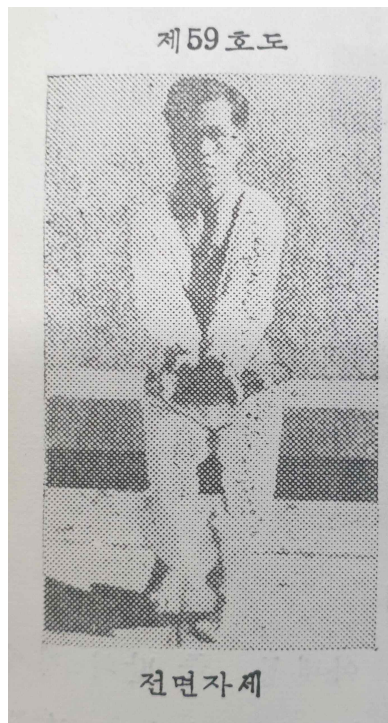


그림 7. 사진 발 잡아 막기³⁷⁾

최하단 수도막기법은 〈그림8〉과 같이 한쪽 다리는 펴고 한쪽 다리는 완전히 펴서 앉은 상태에서 양 손날로 아래를 막는 자세이다. 하지만 발 잡아 막기와, 최하단 수도막기는 현재 국기원교본(2005)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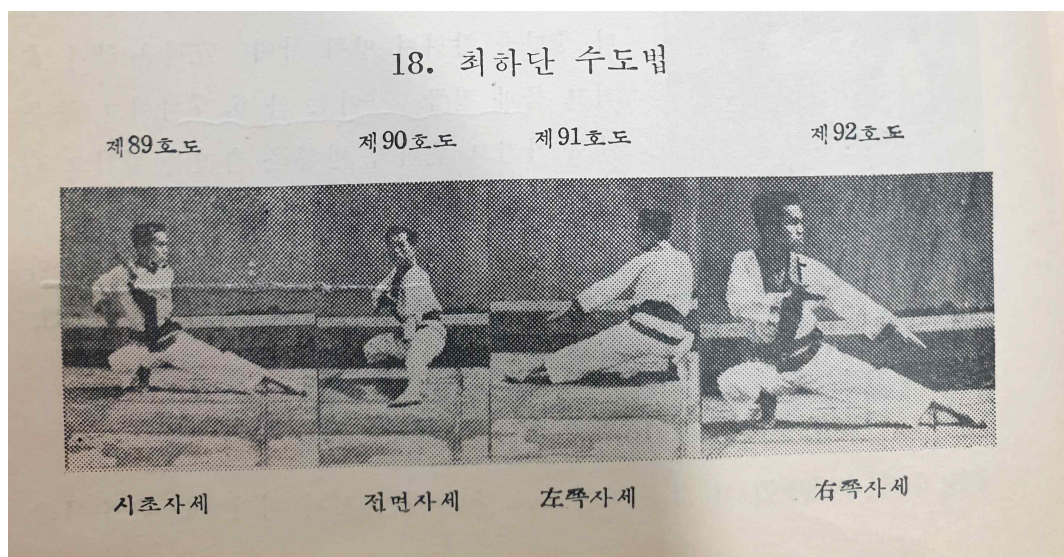


그림 8. 최하단 수도막기³⁸⁾

37)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47.

38)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52.

발차기 기술도 공격과 방어로 나뉜다. 발차기의 공격은 발 앞으로 올리기 법, 발 옆으로 올리기 법, 앞차기 법, 돌려차기 법, 무릎치기 법, 짓밟기, 옆차기 법, 빗차기 법, 옆 뺀어 차기법, 뒤차기 법, 두발차기, 쌍발차기, 뛰어차기, 거꾸차기 등 14 종류로 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빗 차기, 뒷차기 법이 이 시대에도 사용되었는데, 뒷차기 법은 현재 사용되는 뒤차기와 동일한데 1950년대 후반에도 뒷차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뒷차기는 앞에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차는 기술이라고 설명한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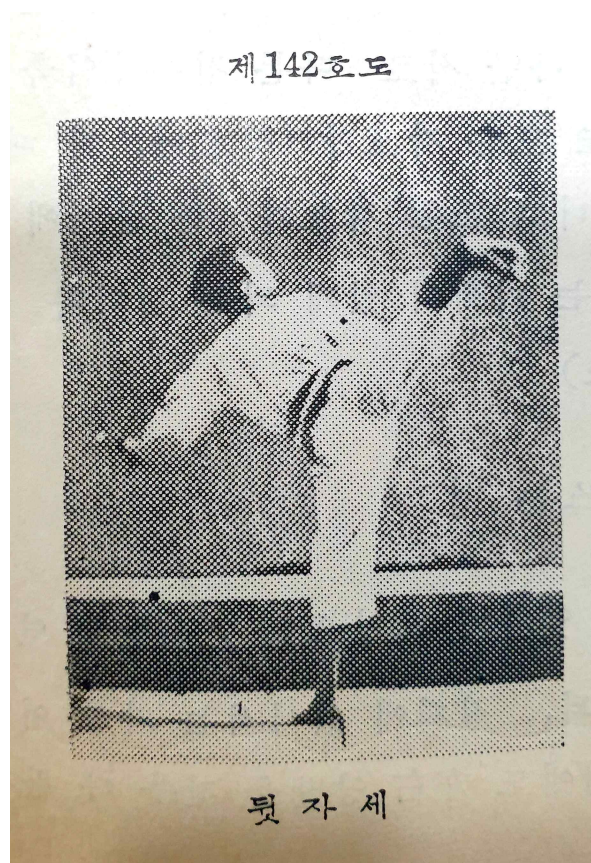


그림 9. 뒷차기 자세⁴⁰⁾

빗차기는 현재 비틀어차기와 같은 기술이지만 품새에 나오지 않아 잘 사용되지 않고 수박도 무덕관에서는 아직도 대표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39)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 68.

40) 황기(1958). 『당수도교본』. p.65. 그림은 뒷자세 라고 나와 있지만 뒷차기 법을 설명하고 있음.

『당수도교본』(1958)							
번호	사용부위		서기	손 공격	손 방어	발차기	
	손	발				공격	방어
1	주먹	앞발	준비자세	중단공격법	상단 막기법	발 앞으로 올리기 법	발로 안에서 막기법
2	갑권 ⁴¹⁾	옆발	평립자세	상단공격법	밖→안 막기법	발 옆으로 올리기 법	발로 밖에서 막기법
3	일지권(갑)	발바닥	발 모아 서기자세	관수공격법	쌍수 상단막기법	앞차기법	
4	일지권(을)	뒷발	전굴자세	팔굽공격법	쌍수 하단막기법	돌려차기법	
5	권도	등발	후굴자세	팔굽치기법	안→밖 막기법	무릎치기법	
6	집게손	무릎	사고립 자세	틀어 중단공격법	발 잡아 막기법	짓밟기	
7	수도		기마립 자세	틀어 상단공격법	틀어 밖→안 막기법	옆차기법	
8	역수도		한발로 서기 자세(갑)	수도공격법	틀어 안→밖 막기법	빋차기법	
9	관수		한발로 서기(을)	횡진 ⁴²⁾ 공격법	중단 옆막기법	옆편어차기법 (학다리옆차기)	
10	일지 관수		한발로 서기(병)	역진공격법 ⁴³⁾	후굴하단 막기법	뒤차기법	
11	이지 관수		교차립 자세		후굴 상단막기법	두발차기	
12	손바닥 밀				후굴 쌍수 하단막기법	쌍발차기	
13	유권 ⁴⁴⁾				상단 수도막기법	뛰어차기	
14	팔굽(갑)				하단 수도막기법	거푸차기	
15					최하단 막기법 ⁴⁵⁾		
16	팔굽(을)				후굴양수옆막기 법		
17					후굴 밖→안 막기법		
18					후굴 안→밖 막기법		
계	15	6	11	10	18	14	2
총계	76						

표 11. 『당수도교본』의 기술명칭

흥미로운 것은 형을 배우기 전에 초보자가 배우는 기초형을 배우게 되는데,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이동, 간격, 시선, 연무선 등을 정확하게 배우게 되며 이는 모든 형의 기초가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초보자들이 배울 수 있는 형은 초보자라도 혼자 실시할 수 있도록 세심함을 기울였으며, 기초형과 기본적인 형 34개를 터득한다면 보신법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당수도 형은 보신법, 즉 호신술이 아닌 별도의 기술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당수도교본(1958)							
번호	사용부위		서기	손 공격	손 방어	발차기	
	손	발				공격	방어
계	15	6	11	10	18	14	2
총계	76						

표 12. 명칭 기술의 개수.

7) 대련법

(1) 대련의 의의

“당수도는 선수가 없다 하여 소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수도 수련으로 막는 것이 공격이요 공격이 막는 것이 될 수 있다. 투쟁의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중략.....대련의 모체는 형인 것임이 원칙이다. 생명이 있는 형을 습득하여 그 생명을 신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어디까지나 형인 것이며, 대련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이정신에 입각하여 형의 요소를 살려 신중하고 정확을 가하여 순서적으로 공을 조급하게 굴지 말고, 상

41) 현재 등주먹을 말함.

42) 현재의 옆지르기 기술.

43) 현재의 바로지르기 기술.

44) 주먹을 쥐고 손가락 뼈(수지골)중 중간 마디뼈(중절골)와 첫 마디뼈(기절골)의 관절을 이용해 노크하듯이 공격 또는 막기 하는 기술. 이 기술은 완전 공격 보다는 상대방을 속임 동작으로 많이 사용된다.

45) 몸을 최대한 앞아 뒷굽이 형태로 거들어 손날 아래막기를 한 형태의 기술.

호간에 예의와 겸양 등 정신수양의 모든 미덕을 발휘하여 성의껏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화랑도의 정신이요, 또한 당수도의 정신의 말로인 것이다.” 46)

모든 기초나 대련의 시작은 형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형의 수련 없이 대련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일격필살의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대련의 8대 요소

『당수도교본』(1958)에서는 대련의 8대 요소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 ① 기압⁴⁷⁾,
- ② 중심의 이동,
- ③ 시선,
- ④ 거리의 조정,
- ⑤ 방공(防攻)의 정확성 힘,
- ⑥ 힘의 강약,
- ⑦ 호의의 조정,
- ⑧ 체의 신축

그리고 타인을 상대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고 존중해야 하는 당수도정신과 물러서지 않는 용기 등을 기술했다.

(3) 단련 실시법

5편 제6장에 단련 실시법⁴⁸⁾ 이라고 표기 되었지만 다음 장에서 다시 6편 단련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련법이 아니라 대련법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며 이는 오타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와 마주보고 실시하는 일반적인 약속 대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단련법으로 제자리에서 돌씩 마주보고 상대와 약속에 의해 공방을 주고받는 요령을 설명하였다.

46)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164-165.

47) ‘기합’ 이 아니라 ‘기압’ 으로 표기 되어 있음.

48)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 167.

(4) 수식 대련법

3수식 대련법과 1수식 대련법으로 오늘날 세 번, 한 번 겨루기와 같은 형태로 전진과 후진을 통해 시선, 거리, 중심, 힘의 강약, 정확성 등을 익히는 과정을 의미한다.

(5) 1수식 복식법

1수식 복식법은 상대의 공격을 양손으로 막아내고, 연이어 반격하는 기법으로 주로 발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자유 대련법

자유 대련법은 수식 대련법과 달리 약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 태권도의 자유겨루기와 같은 형태지만 손으로 많이 방어하는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실제로 상호간의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대련법 용어와 명칭을 수식대련법, 1수식 복식법, 자유대련법이라고 표기해 놓았다. 하지만 이 명칭만 보면 치밀한 구성과 기술의 위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기술의 용어와 명칭이 정립되지 않고 한자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8) 단련법

(1) 단련법의 개론

이 책에서 초보자용으로 단련법의 전문적인 이론이나 방법을 기재하지 않았다. “단련 도구는 초보자인 경우 2가지면 충분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득도구 대와 단련주머니(백)’ 이 2가지가 가장 이상적인 도구라고 말했다.”⁴⁹⁾

단련의 분류로는 수(팔), 족(다리)으로 했으며, 단련의 방법으로는 9가지로 비교적 자세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제시하였다.

49)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188-189 요약.

번호	내 용
1	꾸준한 성의와 노력과 인내력.
2	요령과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시.
3	자기 체력, 체질에 부합하는 단련.
4	자기 당수도 기술수련 정도 여하를 정확하게 판단해 이에 부합하는 단련 계단을 밟아 올라갈 것.
5	무조건 단련만 하지 말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자기 자신의 연구, 반성을 대해 가면서 단련.
6	당수도 기초 동작에 입각하여 단련.
7	시선, 거리, 중심, 방향, 힘과 호흡은 유의하여 단련.
8	단련시 단전에 중심과 힘을 모아 실시.

표 13. 단련시 중요사항 요약

단련기구 제작법도 “득도구대는 길이 7척, 넓이 3치, 두께는 3푼 정도로 해서 만든다.”⁵⁰⁾와 같이 제작방법과 규격 등을 자세하게 적시하였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얇게 만드는데 이것은 탄력을 주기 위함이다.

주로 발을 단련하는데 사용되는 단련주머니는 50~100근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포목 속에 70근⁵¹⁾의 톱밥을 넣고 공간을 주어 묶고 공중에 매달고 단련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단련 부위는 주먹, 등주먹, 손날, 팔굽, 앞축, 뒷축을 말하고 있다.

50) 길이 1척은 약 30cm로 7척은 210cm에 해당하며, 넓이 1치는 3.03cm로 3치는 9.09cm에 해당한다.

또 두께 1푼푼은 3.33mm로 3푼은 9.99mm에 해당한다.

51) 무게 1근은 0.6kg으로 70근은 42kg, 50~100근은 30~60kg 이다.

10) 도수방어법

번호	구분
1	양수로 잡으려 달려들 경우
2	뺨을 갈겼을 경우
3	먹살을 잡혔을 경우1
4	먹살을 박혔을 경우2
5	먹살을 박혔을 경우3
6	먹살을 박혔을 경우4
7	한 손목을 한손으로 잡혔을 경우1
8	한 손목을 한손으로 잡혔을 경우2
9	한 손목을 한손으로 잡혔을 경우3
10	두 손을 양수로 잡혔을 경우
11	손을 밖으로 비틀렸을 경우
12	손을 안으로 비틀렸을 경우
13	앞에서 머리카락으로 끌어당겼을 경우1
14	앞에서 머리카락으로 끌어당겼을 경우2
15	앞에서 목을 끼어 안겼을 경우1
16	앞에서 목을 끼어 안겼을 경우2
17	앞에서 어깨를 끼어 안겼을 경우
18	앞에서 팔 밑으로 허리를 끼어 안겼을 경우
19	앞에서 어깨를 끼어 안겼을 경우1
20	앞에서 어깨를 끼어 안겼을 경우2
21	앞에서 허리를 껴안으려고 달려들 경우
22	앞에서 다리를 껴안으려고 달려들 경우1
23	앞에서 다리를 껴안으려고 달려들 경우2
24	뒤에서 목을 껴 안겼을 경우1
25	뒤에서 목을 껴 안겼을 경우2
26	뒤에서 어깨를 껴 안겼을 경우1
27	뒤에서 어깨를 껴 안겼을 경우2
28	뒤에서 어리를 껴 안겼을 경우
29	뒤에서 팔 밑으로 허리를 껴 안겼을 경우1
30	뒤에서 팔 밑으로 허리를 껴 안겼을 경우2
31	뒤에서 팔 밑으로 허리를 껴 안겼을 경우3
32	앞에서 허리띠를 잡혔을 경우
33	뒤에서 허리띠를 잡혔을 경우1
34	뒤에서 허리띠를 잡혔을 경우2
35	뒤에서 두 손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목뒤를 잡혔을 경우1
36	뒤에서 두 손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목뒤를 잡혔을 경우2
37	뒤에서 두 손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목뒤를 잡혔을 경우3

표 14. 도수방어법 종류

11) 특수방어법

(1) 앉아서 방어하는 방법

번호	구분
1	손으로 상단공격 당하였을 경우1
2	손으로 상단공격 당하였을 경우2
3	손으로 상단공격 당하였을 경우3
4	양수로 상단공격 당하였을 경우
5	양수로 두 손목을 잡으려고 할 경우
6	양수로 두 손목을 잡혔을 경우
7	손으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8	손으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9	뒤에서 어깨를 껴 안겼을 경우1
10	옆에서 상단공격 당하였을 경우
11	의자에 앉아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12	의자에 앉아서 상단을 양수로 공격당하였을 경우
13	의자에 우(右)쪽을 좌(左)쪽 무릎 앞에 앉아 놓고 앉았을 때 상단을 공격하여 왔을 경우
14	의자에 좌(左)쪽을 우(右)쪽 무릎 앞에 앉아 놓고 앉았을 때 상단을 공격하여 왔을 경우
15	의자에 앉았을 때 옆에서 상단을 공격하여 왔을 경우
16	의자에 앉았을 때 상단을 공격하여 왔을 경우1
17	의자에 앉았을 때 상단을 공격하여 왔을 경우2
18	의자에 앉아 상단공격을 당하였을 경우

표 15. 앉아서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2) 누워서 방어하는 방법

번호	구분
1	하부에서 발로 공격을 당하였을 경우
2	하부에서 두 팔목을 잡혔을 경우
3	상부에서 양수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4	좌(左) 옆에서 손으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5	옆으로 누웠을 때 뒤에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6	옆으로 누웠을 때 하단 발목을 잡혔을 경우
7	옆으로 누웠을 때 전면에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8	옆으로 누웠을 때 상부에서 상단을 손으로 공격당하였을 경우

표 16. 누워서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3) 쓰러지며 방어하는 방법

번호	구분
1	앞으로 쓰러지며 반격
2	뒤로 쓰러지며 반격
3	옆으로 쓰러지며 반격

표 17. 쓰러지며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4) 곤봉을 방어하는 방법

번호	구분
1	단봉으로 상부로부터 상단공격을 당하였을 경우1
2	단봉으로 상부로부터 상단공격을 당하였을 경우2
3	우(右)쪽 옆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4	좌(左)쪽 옆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5	앞에서 명치를 향하여 찔러 왔을 경우1
6	앞에서 명치를 향하여 찔러 왔을 경우2
7	우(右)쪽 옆에서 중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8	좌(左)쪽 옆에서 중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9	곤봉으로 공격당하였을 경우 피하는 법

표 18. 곤봉을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5) 장봉을 방어하는 방법

번호	구분
1	장봉으로 상부로부터 상단공격을 당하였을 경우1
2	단봉으로 상부로부터 상단공격을 당하였을 경우2
3	중단을 찔러 왔을 경우1
4	중단을 찔러 왔을 경우2
5	우(右)쪽 옆에서 중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6	좌(左)쪽 옆에서 중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7	좌(左)쪽에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8	우(右)쪽에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9	최하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10	장봉 공격을 피하는 방법

표 19. 장봉을 방어하는 방법의 종류

(6) 단도(短刀)공격을 방어하는 법

번호	구분
1	상부로부터 상단공격을 당하였을 경우1
2	상부로부터 상단공격을 당하였을 경우2
3	좌(左)쪽에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4	우(右)쪽에서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5	앞에서 찔러 공격을 당하였을 경우1
6	앞에서 찔러 공격을 당하였을 경우2
7	앞에서 찔러 공격을 당하였을 경우3
8	앞에서 찔러 공격을 당하였을 경우4
9	앞에서 찔러 중단공격을 당하였을 경우
10	앞에서 공격당하였을 경우 피하는 법
11	앞에서 상단공격을 당하였을 경우
12	앉았을 때 상단을 공격당하였을 경우
13	누워서 단도로 공격을 당하였을 경우

표 20. 단도(短刀)공격을 방어하는 법의 종류

(7) 권총공격을 방어하는 법

번호	구분
1	앞에서 권총으로 중단을 위협 당하였을 경우
2	뒤에서 상단을 위협 당하였을 경우
3	앞에서 상단을 위협 당하였을 경우1
4	앞에서 상단을 위협 당하였을 경우2
5	뒤에서 중단을 위협 당하였을 경우
6	옆에서 약간 떨어져 위협을 당하였을 경우
7	앞에서 장거리서 권총으로 위협을 당하였을 경우

표 21. 권총공격을 방어하는 법의 종류

(8) 총검 공격을 방어하는 법

번호	구분
1	앞에서 상단을 찔러올 경우
2	앞에서 중단을 찔러올 경우
3	앞에서 상단을 찔러올 경우1
4	앞에서 상단을 찔러올 경우2
5	앞에서 총개머리로 상부에서 상단을 공격하여 왔을 경우

표 22. 총검 공격을 방어하는 법

위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본 교본은 호신술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호신술의 종류도 여러 가지 경우 외, 상황을 다양하게 정리했는데 호신법의 기술이 총 73개나 정리되어 있었다. 기술의 위계는 나누어져 있지만 사진이 중복 된 것이 간혹 보인다. 권총과, 총검이 호신술로 나온 것은 1950년 말 한국전쟁이 끝난 뒤 남북이 대치하고 총기에 의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절, 무기로부터의 호신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신법의 종류	구분
1	앉아서 방어하는 방법
2	누워서 방어하는 방법
3	쓰러지며 방어하는 방법
4	곤봉을 방어하는 방법
5	장봉을 방어하는 방법
6	단도(短刀)공격을 방어하는 법
7	권총공격을 방어하는 법
8	총검 공격을 방어하는 법

표 23. 호신법의 종류와 개수

12) 『당수도교본』(황기, 1958) 소결론

황기 관장이 집필한 『당수도교본』(1958)은 현대의 기간도장(基幹道場)인 5대관 중 하나였던 무덕관 황기 관장이 집필한 책으로 태권도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이 책의 내용과 기술의 종류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1958년에 발간된 당수도교본』(1958))은 1949년에 발간한 『화수도 교본』의 증보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화수도교본』에서 『당수도교본』(1958)으로 바뀐 것은 “당수도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쓰고 있으나 이것은 본의 아닌 칭호인 것이다.....그러나 일반 대중은 당수도라고 하여야 잘 알아듣는 것만은 사실이다.”⁵³⁾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은 당시 화수도라는 명칭이 대중적으로 선호도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내용의 체계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 ① 심신단련 중점
- ② 초보자들이 보기 쉬운 보편적인 기술에 중점을 둠
- ③ 유급자에서 1~3단 직전의 수련자들이 볼 수 있는 교본
- ④ 보신법

이렇게 설명했지만 보신법은 기술의 개수가 많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다.

셋째, 형은 초보자를 위한 기초형과 유급자들을 위한 형, 그리고 1~2단 정도의 형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이한 것은 태극권과 같은 중국무술의 투로 2개가 함께 수록되어 총 37개의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기술의 체계를 분석한 결과 사용부위는 손 16종류, 발 6종류, 서기 11종류, 손 공격 10종류, 손 방어 18종류, 발차기 공격이 14종류, 발 방어 2종류로 총 76종류의 기술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유권, 사고립 자세, 발 잡아 막기법, 최하단 막기법은 현재 국기원 태권도교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기술이지만 수박도 무덕관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당수도교본』 황기(1958)는 총 359p로 계량문화사에서 단기 4291년 7월 25일(1958년 7월 25일) 인쇄해서 단기 4291년 7월 30일(1958년 7월 30일) 가격은

53)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p.18.

2,700원으로 발행했다. 특이하게 지상 응급구호법과 수상구호법이 104페이지로 적지 않은 분량을 담고 있다. 이는 시대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수도교본』(1958)은 사진과 함께 체계적인 책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기술의 난이도에 대한 위계는 차이가 없고, 중국의 투로⁵⁴⁾와 가라테 카타(형)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형은 없었다. 기술용어 또한 모두 한자나 일본식 발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한국적인 기술 용어는 보이지 않았다.

2. 『백만인의 태수도교본』(이교윤, 1958)의 분석

1) 저자 소개

이교윤 관장은 193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1947년이였다. 당시 조선무선중학교(현 광운전자공고)에 다니던 그는 허약한 몸을 단련하기 위해 호기심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던 조선연무관 권법부에 입관을 했다. 초창기 수련생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그림 11. 1969년 5월3일 대통령기 입상-이교윤⁵⁵⁾

54) 중국무술에서는 품새를 ‘투로’라고 부름.

그는 친구들이 수련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 도장에 왔다. 그의 선배는 이종우를 비롯하여 배영기, 홍찬길, 김복남이었고, 동기생은 김수진, 정진영, 이영덕, 이병로였다. 특히 이병로와 막역하게 지냈다.

“그때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간의 예의를 참 중시했어요. 따라서 선배 앞에서는 감히 담배를 피울 수도 없었으며, 수련 후 몸을 씻을 때도 입관 순서로 씻어야 했죠. 특히 새로 입문한 수련생은 초단을 딸 때까지 도장 마루를 매일 닦아야 했습니다. 초창기 수련방식은 주로 형(품새)을 많이 했습니다. 무도를 중시했기 때문이죠. 여름과 겨울철에는 방학을 이용하여 모셔수련과 모한수련을 하곤 했습니다. 가장 더울 때와 가장 더울 때를 골라서 했어요.” 56)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수련은 오후 5시부터 3부(한부 당 100명)로 나뉘어 1시간씩 이루어졌다. 당시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창설한 전상섭의 동생 전일섭은 전라북도 군산과 전주에 지관을 개관, 전북을 근거지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1950년 1월, 3급 통신사 면허를 취득한 이교운 관장은 서울시경 정보실에서 통신사로 근무하면서 각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아침마다 태권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태권도를 수련한 경찰들은 명동 소재 시공간(극장)에서 연무대회를 펼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공무원으로 소임을 다하면서 태권도에 전념하던 그로서는 뜻밖의 일이었다. 당시 갓 20세가 되어 징병 대상이었지만 서울시경에서 통신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군에 차출되지 않았지만 동기 수련생들은 대부분 입대해야만 했다.

전쟁 후 폐허가 되어 버린 환경 속에서 각 도장은 온전할 리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이교운 관장은 스승 전상섭 관장의 행방이 묘연해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재건할 사람이 없자 자신이 나서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도장이 있던 곳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서울 을지로 3가에 있던 한국체육관 관리자의 허락으로 그 곳에서 수련을 할 수 있었다. 한국체육관에서 1953년 7월, 공수도부를 만들어 조선연무관 권법부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연무관 권법부는 지도관(智道館)으로 개칭

55) 사진출처 : 이교운.

56) 이교운(1997). 10월, 한무관의 역사 인터뷰 내용 중.

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이종우 관장과 갈등을 빚자 지도관을 나와 1954년 봄까지 사범생활을 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강문고등학교 옆 공터에 한무관(韓武館)을 개관했다.



그림 12. 연극배우 겸 성우 백금려를 지도하는 이교운 관장⁵⁷⁾

초창기 한무관은 24인용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수련할 정도로 열악했다. 한국체육관에서 이교운 관장의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수련을 했다. 그 후 한무관은 수련생들이 증가해 1969년 서울 왕십리로 중앙본관을 이전했다.⁵⁸⁾ 당시 서울 시청 고위 관계자가 그의 뒤통이를 보고 부지 70평을 임대해 줬다.

한무관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한무관의 첫 지관은 충북 제천이었다. 그의 제자인 정익진은 고향에 내려가 도장을 개관했다. 그 후 한무관의 지관은 서울 일원에서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았다.

1965년 이교운 관장은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을 펴내지만 그해 ‘태수도(跆拳道)’의 명칭이 ‘태권도(跆拳道)’로 바뀌게 된다. 그 후 직장(서울시경 정보부

57) 사진출처 : 이교운.

58) 서성원(2014). 『태권도 던(傳)』. 서울. (주)에니빅. p.40.

통신사)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대한태권도협회 상벌분과위원장, 파견분과위원장, 경기분과위원장, 기술심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태권도협회는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가라테 형(型)을 탈피하기 위한 독자적인 품세(品勢) 제정에 들어갔다.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형’을 ‘품세’로 불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품세(品勢)는 이종우(품세 제정위원장)가 명명(命名)했고, 세(勢)는 기세, 형세라 하여 중국무술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그는 광근식(청도관), 이영섭(송무관), 박해만(청도관), 김순배(창무관) 등과 함께 품세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유단자 품세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새로 제정한 품세를 배우기 위해 각 도장들 수련생들이 시간이 꽤 걸렸다.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어서 품세제정위원들이 각 도장에 다니면서 새로 만든 품세를 교육하고 강의도 했다. 각 도장의 수련생들은 새로 만든 품세를 배우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그는 태권도 동작에 남아 있는 일본 가라테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나는 우리 품세 동작 중에서 고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준비 자세부터 일본 가라테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죠. 해방 후 도장에서 태권도 배울 때 가라테 기본동작을 가져왔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해요. 태권도 몸통 지르기도 우리가 배울 때는 ‘전진(前進)’이라고 했는데, 용어 명칭만 바뀌었지 동작은 비슷합니다. 그걸 두고 태권도 동작이 ‘왜색(倭色) : 일본의 문화나 생활양식을 띠고 있는 색조)’에 물들어 흉내 내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연구해서 고쳤으면 좋겠어요.” 59)

이교운 관장은 1977년 제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때 한국대표선수단 단장으로 서 소임을 다해 대한민국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았다.

59) 무카스(2017). 태권도를 빛낸 故 이교운 원로 추모영상.



그림 13. 1970년대 한무관 김철환 우승-이교윤⁶⁰⁾

이교윤 관장은 태권도 학문에 관심이 많아 태권도교본 집필에 열심이였다. 태권도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것은 제대로 된 태권도교본을 만들어 후배들이 태권도 수련에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의지 속에서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⁶¹⁾을 출간한 데 이어 1970년 『알기 쉬운 태권도교본』⁶²⁾, 『(표준)태권도교본』⁶³⁾, 1996년 『태권도 길잡이』⁶⁴⁾를 출간했고, 2002년에는 영한 혼용문으로 『글로벌 태권도』⁶⁵⁾를 펴내 상편은 태권도 기본동작과 품새 등 태권도 동작의 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했고, 하편은 태권도 근대사를 중심으로 역사 부분을 서술했다.

이처럼 태권도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는 태권도 발전의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국기원이 주최한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시상식에서 ‘국기장’을 수상했다. 당시 병환 중이어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제자 장정희가 대리 수상했다. 그는 2017년 5월, 87세로 타계했다.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은 태권도가 경기화가 된 후 출간된 대표적인 책들

60) 사진출처 : 이교윤.

61)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62) 이교윤(1971). 『알기쉬운 태권도교본』. 서울. 삼신서적.

63) 이교윤(1987). 『(표준)태권도 교본』. 서울. 일신서적공사.

64) 이교윤(1996). 『태권도 길잡이』. 서울. 창진출판사.

65) 이교윤(2002). 『글로벌 태권도』. 서울. 한미출판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구분	내용
제목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인쇄	1965년 5월 20일
발행	1965년 5월 25일
가격	300원
발행처	토픽 출판사
페이지 수	191p

표 24. 서적의 발행 서식 정보

2) 태수도의 의의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의 저자 이교윤 관장은 1961년 9월 19일 당시 지도관의 이종우, 강덕원의 박철희, 오도관의 고재천과 함께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대한태권도협회의 창설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1961년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의 명칭은 대한태수도협회였다. 그래서 이교윤관장이 집필한 교본 명칭이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이다. 이 책에서는 태권도의 의의를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다.

(1) 태수도 정의와 사적고찰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에서 태권도의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성행 보급되고 있는 ‘태수도’는 종전에 불리던 공수도, 당수도, 권법, 태권도, 수박도 등 여러 명칭을 통합(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가맹) 집대성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이론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유, 음양, 호흡의 원리에 근본을 두고 적수공권으로 호신과 함께 적을 막는 공방자체의 윤리적 교훈을 그 바탕으로 삼는 무도인 것이다.”⁶⁷⁾ 이 말은 태권도가 체육단체에

66)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2014). 서울. 주식회사 애니빅. p.55.

가입하면서 체계화되고 이론과 과학적 연구들이 활발해졌다는 해석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권법, 태권도, 수박도 등 다양한 명칭을 통합했는데, 오늘날의 태권도가 1955년 4월 11일 제정되었다는 국제태권도연맹의 창설자 최홍희씨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

태권도의 기원(태권도의 유래)에 대해서는 “집단체를 형성하고 자연과 싸우기 시작하고 원시사회 씨족사회를 시작하면서 생존경쟁이라는 본능에서 공격 투쟁 방법이 절실히 필요했고, 태초에 무기가 없었던 당시에는 외적 또는 맹수 등을 만났을 때 자체방어를 위해서 갖가지의 술을 필요로 했을 것이며 그 술이란 주먹을 비롯하여 손과 발의 적절한 움직임, 즉 족기, 수기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수도는 어떠한 특징인으로부터 전과된 것이 아니라 선인들이 활용했던 그러한 갖가지의 술을 시일을 거듭함에 따라 체계화되고 보다 전문화시켜 놓은 것이 오늘날의 태수도라 하겠다. 일설에 의하면 1,400년 전 인도의 대승 달마대사가 양무제때 중국으로 건너와 하남성 소림사를 세우고 불심의 참배로 인해 신체가 허약해진 것을 우려 수도 및 호신을 목적으로 술법을 창한 것이 소림사권법이고, 이것이 태수도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문헌을 아직껏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이 방면에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⁶⁸⁾

이교윤 관장은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에서 태수도의 기원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자연발생적인 생성, 둘째는 인도의 대승 달마대사가 1400년 전 양무제때 중국 하남성 소림사에 불제자들의 건강을 위해 창안한 것이 ‘태수도’라고 수록되어 있지만 확실한 문헌이나 자료는 없음을 밝히고 있다.

(2) 태수도의 특징과 수련 목적

태수도의 수련 목적은 크게 6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둘째, 장소의 광협을 막론하고 춘하추동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셋째, 인격 완성을 위한 정신도야에 가장 이상적이다. 넷째, 기구에 있어서 부담을 많지 않으며 자기 혼자서도 능히 수련할 수 있다. 다섯째 운동하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여섯째, 지체의 비만을 막고 최적의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이상적이다.”⁶⁹⁾

67)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13.

68)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13-14 요약.

69)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14.

특히 정신 수련에 그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교윤 관장은 원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무도란 인적 완성의 요소인 정신수양에 있다. 태수도수련의 목적은 어떠한 역경에 부딪치더라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당면한 일을 침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정력을 배양시킴과 아울러 어떠한 고통이라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기르는데 있다. 즉 인격완성을 위한 정신도야가 그 목적인 것이다” 70)

3) 태권도의 기초 지식

(1) 태권도의 조직(사용부위)

태권도의 조직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태권도 기술의 사용부위를 말하고 있다. 주먹을 쥐는 법을 시작으로 해서 손의 사용부위, 발의 사용부위, 서기 공격, 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동작의 자세는 입자세(立姿勢-서기) 2가지, 수추동작(手槌動作-공격) 3가지, 수수동작(手受動作-방어) 4가지의 발차기와 발 막기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 교본에서 나오는 기술은 표25와 같다.

70)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14.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1965)							
번호	사용부위		서기	손 공격 ⁷¹⁾	손 방어	발차기	
	손	발				공격	방어
1	정권	발 앞꿈치	팔(八)자세	전면공격	떨치기	내차기 ⁷²⁾	발막기 ⁷³⁾ 내수(內受)
2	이권(등주먹)	발 뒤꿈치	폐(閉)족세 ⁷⁴⁾	전진공격	헤치기	앞차기	발막기 외수(外受)
3	권도(메주먹)	족도	전(前)굴세	후진공격	절리기	옆차기	
4	평권 ⁷⁵⁾	발 뒤꿈치	후(後)굴세 =묘목세	횡진공격	절치기	둘러차기	
5	인지 일지권	발등	정자세 ⁷⁶⁾	역진공격	당기기	무릎차기	
6	중지 일지권	발바닥	양굴세(주춤)		하단방어	뒤차기	
7	장권(곰손)		사고세		중단방어	깃잡기	
8	수도		자연자세		측 중단방어	걸어차기	
9	역수도		준비자세		상단방어	뛰어차기	
10	사지관수					두발차기	
11	이지관수					깊이 뺏어차기	
12	일지관수					급히 올려차기	
13	장수					높이 둘러차기	
14	곧 팔꿈치 ⁷⁷⁾						
15	옆 팔꿈치						
16	안 손목						
17	바깥 손목						
18	무릎						
19	발끝						
20	두부(이마) ⁷⁸⁾						
21	어깨						
계	21	6	9	5	9	13	2
총계	65						

표 25. 태수도교본 기술의 종류

『태수도교본』의 용어는 한글과 함께 한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1960년대 당시 한자 사용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1965)							
	사용부위		서기	손 공격	손 방어	발차기	
	손	발				공격	방어
계	21	6	9	5	9	13	2
총계	65						

표 26. 명칭 기술의 개수

4) 각종 단련법

각각의 단련도구와 단련법을 설명하는 이 장에서는 간단하게 단련법을 소개하고 있다. 단련대는 요동식(搖動式)과 반동식(反動式) 두 가지로 구분한다.

단련봉은 다시 요동식(搖動式)은 210cm중 2/3를 땅에 묻고, 폭 9cm, 두께 6cm로 만든다. 반동식(反動式)은 요동식(搖動式)과 목재와 두께는 같고, 길이는 105cm 정도로 요형(凹型) 오목하게 만든다.⁷⁹⁾

단련 뺑⁸⁰⁾은 길이 120cm, 직경 60cm로 큰 포대에 톱밥 또는 형짚 등을 15관(약 23kg) 정도로 매달아 만든다. 이것은 발을 단련하는데 사용된다고 적시했다. 작은 뺑은 단련 뺑과 재질이지만 길이 60cm, 직경 30cm로 크기가 다르다. 작은 뺑은 속공(빠른 공격)과 동체시력훈련 즉 눈을 단련하는데 적합하다.

71) 공격과 방어의 방향별, 서기별로 크게 나누어 놓았음.

72) 내치기-상, 중,하의 변화로 공격하는 동작.

73) 동일한 기술의 종류는 개수에서 제외함(예 : 발막기=내,외수 발막기).

74) 모아서기 자세와 동일함.

75) 주먹은 3/2를 쥐고 엄지를 인지에 붙이고 급소를 인지와 중지 가운데 마디로 공격하는 기술.

76) 정자세(묘목세에서 무릎을 편 자세).

77) 팔꿈치를 앞으로 올려치는 기술.

78) 아마와 어깨를 공격부위로 표기함.

79)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43.

80) ‘뺑’이라는 단어는 영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문 글은 그대로 인용함.

5) 단련법

단련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기본동작을 어느 정도 익힌 후 시작하고, 둘째는 자기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하고, 셋째 호흡과 중심을 사용하며, 넷째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횟수를 적당히 하고, 다섯째 단련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

단련부위는 정권(주먹), 이권(등주먹), 권도(매주먹), 수도(손날), 관수(손끝), 손목, 발 등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단련하지 않아도 되는 팔꿈치를 단련부위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는 팔꿈치 관절의 신경을 둔화하고, 상체의 유연성을 길러 민첩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이론을 적시했는데 다소 현대에서는 맞지 않는 이론으로 추정된다.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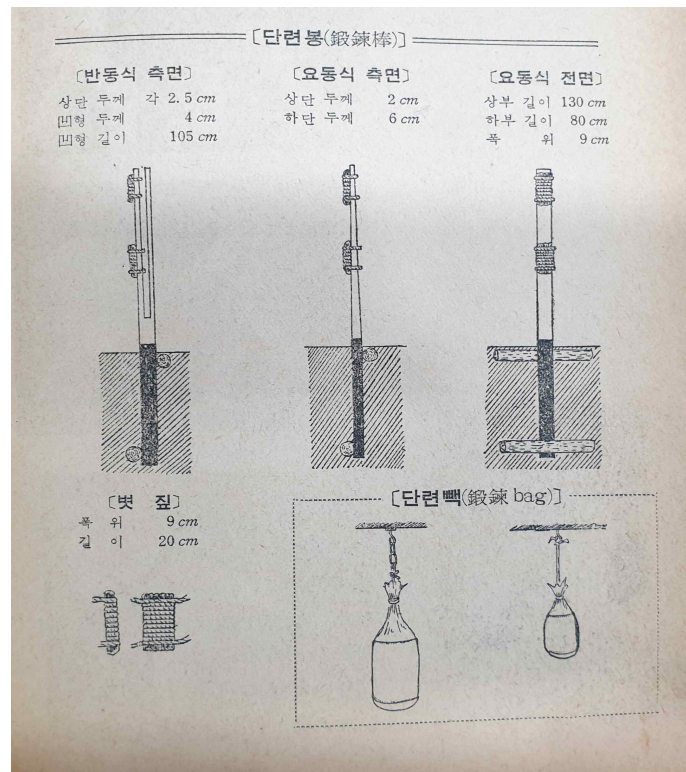


그림 14. 단련대 만드는 방법 『태수도교본』 (1965)⁸²⁾

81)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51.

82)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52.

6) 기식법(氣息法)

기식법은 지금의 호흡법을 말하는데, 호흡은 공격을 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으며 정신통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호흡법의 연습방법으로는 단련봉이나 형(型)을 수련할 때라고 서술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수도(손날)를 단련할 때 “수도가 겨드랑이에 있을 때 공기를 흡입(吸入)하여....중략”⁸³⁾ 당시 수도를 단련할 때 수도의 위치가 허리가 아니라 겨드랑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도(손날)나 주먹을 사용하는 반대손이 허리와 겨드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전호흡을 간단하게 따로 기술하였는데 단전호흡은 한방의학이며, 머리에 열을 내리고 정신을 맑게 할 뿐 아니라 정신통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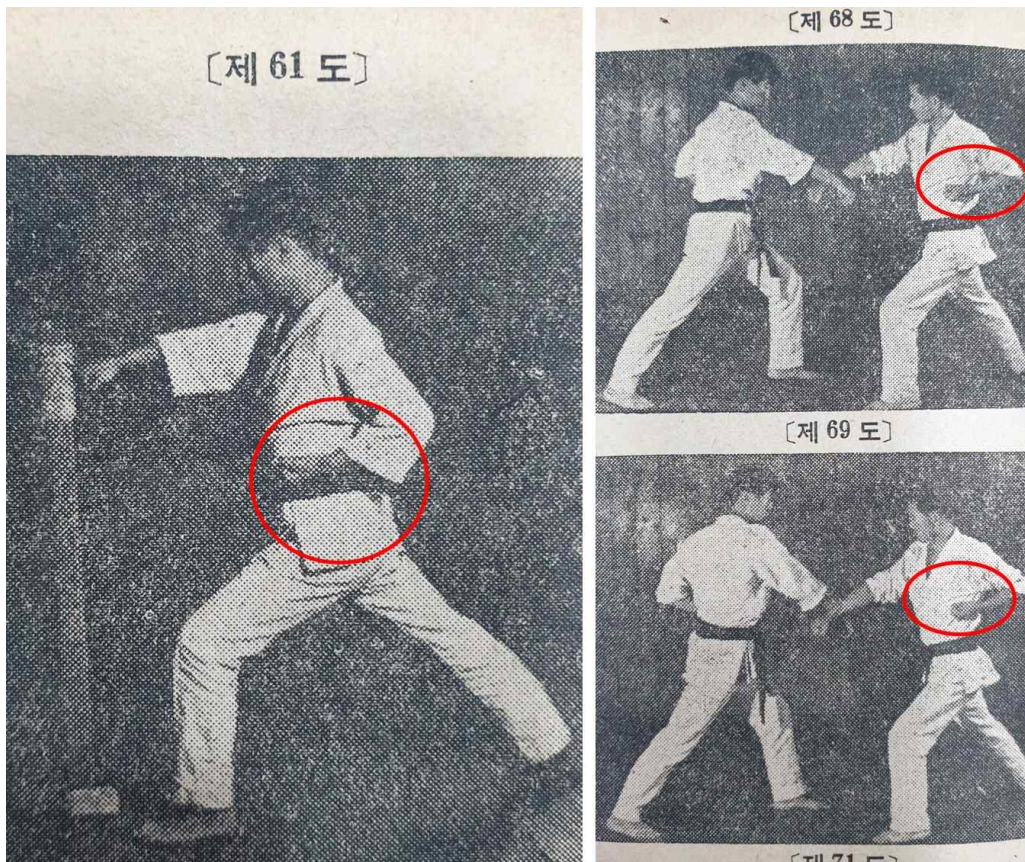


그림 15. 단련대 방법(『태수도교본』(1965)⁸⁴⁾

83)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47-50 요약.

7) 형론

(1) 형의 정의

“옛날 권성의 달인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이론과 기술 중 기본이 될 만한 묘기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한 이상적인 기술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형이란 전후, 좌우 사통팔방에 가상의 적을 만들고 일정한 연무선상에서 체계적으로 공격과 방어의 기본적 기술을 자기 혼자만의 동작으로 연습하는 형태”⁸⁵⁾라고 보았다. 이 말은 태수도의 형은 실전에서 왔으며, 실전을 바탕으로 혼자 수련할 수 있는 체계라고 주장한 것이다.

(2) 형의 종류

형의 종류로는 경민형(經敏型), 즉 가볍고 빠른 형인 소림류(小林流)와 방어 위주의 내가권법(內家拳法)으로 몸집이 비대한 이들이 연마하는 둔중형(鈍重型) 2개로 나뉜다.

경민형(經敏型)			
기본형	평안초단(平安初段)	발색소형(拔索小型)	진정형(鎮定型)
1형	평안 2단(平安2段)	발색대형(拔索大型)	노패형(鷺牌型)
2형	평안 3단(平安3段)	연비형(飛燃費型)	공상군형(公相君型)
3형	평안 4단(平安4段)	암학형(岩鶴型)	연무형(研武型)
4형	평안 5단(平安5段)	진동형(鎮東型)	
총19개			

표 27. 태수도교본 형의 종류(경민형)

85)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57.

둔중형(鈍重型)		
내보진초단형 (內步進初段型)	십수형(十手型)	이십사보형(二十四步型)
내보진2단형 (內步進2段型)	반월형(半月型)	오십사보형(五十四步型)
내보진3단형 (內步進3段型)	자은형(慈恩型)	삼진형(三進型)
	십삼형(十三型)	전장형(轉掌型)
총11개		

표 28. 태수도교본 형의 종류 둔중형

8) 수련상의 유의점

“인내와 지구력을 견지할 것, 정성껏 노력할 것, 완전히 숙달할 것, 과도한 연습을 피할 것, 자만심을 갖지 말 것”⁸⁶⁾이라고 서술했다.

9) 형(型)의 해설

이 책에서는 기본형 1개, 평안형 5개, 내보진형 3개, 공산군형, 반월형, 연무형 등 14개의 형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연무형은 가볍고 기민한 것이 특징인데 이교운 관장이 직접 창안한 형이고, 택견과 중국의 각저기(角抵技)에 그 연혁을 두었다고 주장한다.⁸⁷⁾

이 책에서는 기본형을 4개로 말하고 있는데 기본형 이외에 1, 2, 3, 4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형에서 기합이 빠져 있어 어디에서 기합을 넣는지 불분명하다.

86) 이교운(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60.

87) 이교운(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61.

명칭	동작수	명칭	동작수	명칭	동작수
기본형	22	평안초단(平安初段)	24	내보진초단형 (內步進初段型)	29
		평안 2단(平安2段)	31	내보진2단형 (內步進2段型)	28
		평안 3단(平安3段)	24	내보진3단형 (內步進3段型)	31
		평안 4단(平安4段)	29	반월형(半月型)	37
		평안 5단(平安5段)	22	공상군형(公相君型)	71
				연무형(研武型)	48
준비자세와 바로자세 포함					

표 29. 태수도교본 형의 종류와 동작 수

10) 대련(對鍊), 호신술론(護身術論)

(1) 대련의 의의

대련의 모체를 형(型)으로 보았으며 이론과 기술, 양면의 체험과 성장을 통하여 대인(對人)의 많은 변화를 공방의 기(技)에서 꾸준한 연마와 오랜 체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2) 대련 시 유의사항

대련에 있어 유의사항은 5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대인과의 친화를 으뜸으로 하고, 태수도의 본뜻이니 만큼 언제나 공경과 예의를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는 태수도의 기본동작을 정확히 숙달한 후에 대련실기(對鍊實技)에 임해야 한다. 세 번째는 태수도에는 선수(先手)가 없는 것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혈(穴)의 직전에 멈추는 것을 많이 단련시켜야 한다. 네 번째는 힘의 강약(強弱), 몸의 신축(伸縮) 및 중심의 이동에 각별 유의하며 상대방의 역량과 체질을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기(技)를 포착 내지 선제(先制)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면서 방어기에 능숙하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자기의 뜻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공격력의 둔화를 획책해야 한다.

11) 대련의 종류

약속대련, 자유대련, 응용대련이 있는데 응용대련의 세부대련은 낙법대련, 좌대련(左對鍊), 총검대련 및 호신대련으로 나누었다.

대련 시 유의점이나 종류를 살펴보면 보면 대련 시 직접타격보다 급소 앞에서 끊어주는 대련방식을 권장하였고 선수가 없음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련 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12) 대련의 실제(實際)

(1) 삼진대련

초보자가 수련하는 대련으로 3번의 약속대련을 의미한다. 방어자가 마지막은 방어와 동시에 공격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종류로는 상단 내방내수(上段內訪內受), 측 중단 내방외수(側中段內訪外受), 중단 외방외수(中段外訪外受), 측 중단외방외수(側中段外訪外受), 네 가지가 있다.

(2) 일진대련

상대방과 한 번씩 공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유단자가 수련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그 종류로는 상단 내방내수(上段內訪內受), 중단 내외방수(中段內外方受), 상단 외방내수(上段外方內受), 중단 외방내수(中段外方內受), 측 중단 외방외수(側中段外方外受), 중단 내방외수(中段內方外受), 중단 외방외수(中段外方外受), 일곱 가지로 적시했다.⁸⁸⁾

(3) 자유대련

자유대련은 유의사항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첫째, 자유대련이라는 것은 어떠한 불측(不測)의 경우를 상정해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스포츠로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상호간의 존경과 예의를 함양해야 한다. 셋째, 대련 시에는 상호간의 부상을 피해야 한다.⁸⁹⁾ 이렇게 자유대련 시

88)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149-152.

상호간의 배려와 예의를 제일로 손꼽았으며, 스포츠와 무도로써의 양쪽을 모두 합리화한 것을 볼 수 있다.

13) 호신술론(護身術論)

(1) 호신술의 의의(意義)

호신술은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보호에 그 뜻이 있고, 특히 호신술을 사용할 때는 호신술을 정의로운 곳에 사용해야 하며, 호신술은 전문성과 일반적 호신술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요약, 기술하였다.

(2) 호신술의 실제(實際)

호신술 실제(實際)에서는 기초를 손목 빼기(1, 2번)를 비롯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기술의 명칭이 붙어있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했다.

89)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152-154 요약.

번호	구분
1	손목빼기 1번
2	손목빼기 2번
3	손목 당겨 인중, 턱 치기(손목 수)
4	팔굽꺾기
5	뒤돌아 팔굽치기(뒤로 손목 잡혔을 때)
6	낭심 치기(손목 수)
7	손가락 꺾기(뒤로 안아 잡혔을 때)
8	허리 손목꺾기(띠 잡혔을 때)
9	턱 치며 걸어 넘기기(손목 수)
10	머리 잡아당기며 무릎치기(목 졸랐을 때)
11	뒤돌아 손목꺾기(뒤돌아 목 졸랐을 때)
12	손목 잡아 뒤돌며 꺾기(먹살 수)
13	뒤로 빠져나와 목감기(뒤로 목 잡혔을 때)
14	어깨 넘겨 손목꺾기(목덜미 잡혔을 때)
총계	14개

표 30.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호신술종류(명칭이 없어 요약함)

14) 인체급소(人體急所)

인체의 급소는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외부로부터 작은 충격에도 생리기능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을 말한다. 혈은 총 740개가 있고 본 혈(本穴)이 660개가 있고, 천응 혈(天應穴)이라고 하는 국소 혈(局所穴)이 약 90개가 있고, 사혈(死穴), 운 혈(運穴), 아 혈(啞穴) 등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태수도에서는 3가지의 혈중 50개 내외의 급소를 사용한다고 서술했다. 또한 급소를 이용한 구급법도 적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⁹⁰⁾

15) 태수도 경기규정(競技規定)

이 책에서는 1963년 전국체전에서 태수도(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로 대한체육회 인정을 받아 확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경기규정을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

제1장~13장까지 되어 있고 당시의 경기방식은 리그전과 토너먼트로 구분했고, 체급은 8체급으로 구분했다.

번호	체급	번호	체급
1	핀급(48kg까지)	5	라이트급(68kg까지)
2	플라이급(53kg까지)	6	웰터급(74.3kg까지)
3	반탑급(58kg까지)	7	미들급 (80kg까지)
4	페더급(63kg까지)	8	헤비급(80kg이상까지)

표 31.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체급분류

득점으로는 손 공격 1점, 얼굴 공격 2점을 주고, 나머지는 1점을 주었는데 공격 포인트로는 명치와 양 옆구리,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수도(손날)로 어깨공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⁹¹⁾ 경기시간은 1분 30초 경기, 30초 휴식이며 총 3회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6)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의 소결론

현대의 기간도장(基幹道場)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여러 관으로 나누어졌고 통합의 기초였던 9대관의 하나인 한무관 관장인 이교윤 관장이 집필한 책으로 태권도 역사 사료로 큰 의미가 있다. , 태수도 교본의 총 페이지 수는 191p로 토픽출판사 출간되었다. 1965년 5월 20일 인쇄해서 1965년 5월 25일 발행했고 가격은 3,000원으로 기

90)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166-169 요약.

91) 이교윤(1965).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p.188-191 요약.

록되고 있다. 이 책의 내용과 기술의 종류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태수도(태권도)의 유래는 자연발생적 생성과 인도의 대승 달마대사가 1400년 전 양무제 때 중국 하남성 소림사에 불제자들의 건강을 위해 창안한 것이 ‘태수도’라고 수록되어 있지만 확실한 문헌이나 자료는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형은 사방팔방의 적을 상대해서 가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것이고 태수도 수련상의 모체가 된다고 그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기초형이 4개(기초형, 기초1~4형)인데 그 중 기초형만 수록되어 있고, 그 기초형도 다른 교본의 기초 1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기초형이 3개인지 4개인지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형의 명칭은 또한 가라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고, 책에 수록된 ‘형’ 중 연무형을 이교운 관장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 해줄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셋째, 이 책에는 태수도 경기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3회전 1분 30초 경기, 30초 휴식과 체급은 8체급으로 나누어 놓았다. 백만인의 태수도교본(이교운, 1965)은 태권도가 경기화가 된 후 출간된 책으로 당시 태권도대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넷째, 내용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태수도의 총론과 기초지식(사용부위와 기본기) 등은 아래와 같다.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1965)					
구분	사용부위	서기	방어	공격	발차기
계	27	9	11	6	16
총계	69				

표 32. 『백만인의 태수도교본』 사용부위와 기술의 종류

다섯째, 부록 1은 급소(혈)에 대한 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고, 과거에는 일명 공수, 당수, 권법, 태권은 무술로 알려졌지만 이제 대한태수도협회로 통합되어 태수도가 스포츠로써도 알려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반영하듯 부록2에는 태수도 경기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태수도경기가 1963년 전국체전에 정식종목 채택되어 경기규칙이 생겨났고, 이 규정이 중요한 스포츠로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섯째, 『백만인의 태수도교본』은 태권도가 통합되어 태수도 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1965년 나온 책으로 태권도의 변천과정을 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이 책이 발행되고 16일이 지난 1965년 6월 6일 다시 ‘태권도’ 라는 명칭이 변경되면서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에 수록된 주장의 일부가 퇴색되고, 태수도의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태권도가 WT와 ITF로 나누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의 분석

1) 저자 소개

현대 태권도의 원류인 5대 기간도장 중 하나로, 지금까지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청도관 창설자 이원국 관장의 『태권도교범』은 1968년 진수당에서 처음 발행했지만,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 현재 분석한 책은 이 책의 증보판인 『태권도교범』(1969)이다.

『태권도교범』(1969)은 대한태권도협회 제정형인 기초 1,2형과 팔괘형, 유단자 품세가 수록되어 있는 책으로,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태극1,2형은 기존의 태극형과는 전혀 다른 연무선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분	내용
제목	태권도 교범(1969)
인쇄	1969년 7월 27일
발행	1969년 8월 05일
가격	850원
발행처	신흥인쇄공사
총판	청도관
페이지 수	334P

표 33. 서적의 발행서식

이원국 관장은 1907년 충북 영동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영동에서 소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했다. 일본 동경 중앙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대학 내 권투부에서 활동하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가라테에 심취해 일본 가라테의 본관인 송도관(松濤館)에 입문해 후나코시 기친(船越義珍 1868~1957)에게 가라테를 배워 4단을 받았다.⁹²⁾

그는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 도쿄에 있는 일본인의 집 2층 단칸방을 월세로 얻어서 부인과 함께 살았다. 당시 송도관에서 함께 수련한 노병직과 집 방향이 같아 가끔 같이 가곤 했다.

92) 이호성(2007). 『한국무술 미 대륙 정복하다』.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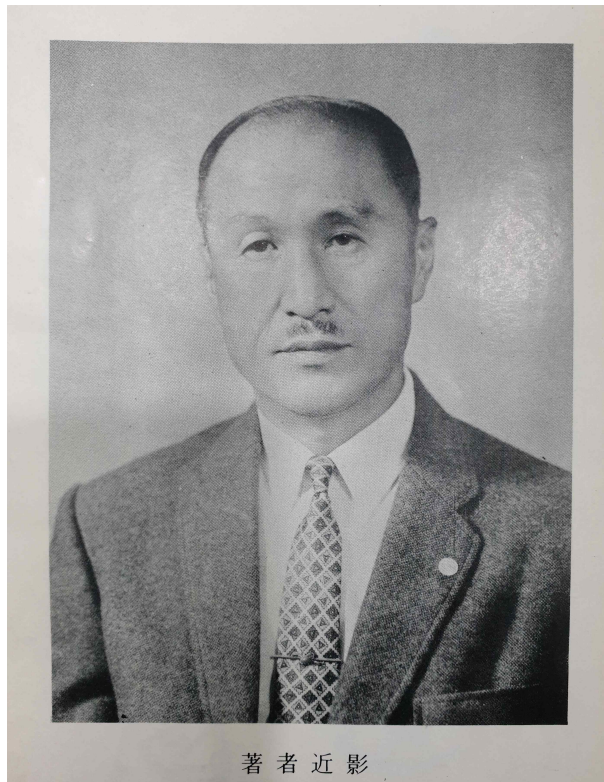


그림 16. 이원국 관장『태권도교범』(1969)⁹³⁾

송무관(松武館)을 개관한 노병직 관장은 1998년 10월 태권도신문에 보내온 글에서 이원국 관장과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청도관 창설자 이원국과는 일본 유학시절 송도관에서 알게 됐다. 그는 나보다 연령이 많았으나 송도관에 늦게 입관해 내 후배가 되는 사람이다. 일본에서 이원국의 직업은 동경도청 산하 우시고메 구역소(각 구청)에서 병사계 직원으로 근무했다.”⁹⁴⁾

1944년 귀국한 이원국 관장은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에 있던 영신학교(永信學校) 강당을 빌려 ‘당수도 청도관(靑濤館)’을 개관했다고 주장한다. 청년 기상과 푸른 활동력을 상징으로 삼은 청도관의 ‘물결 도(濤)’는 일본 거주 시절에 자신이 다녔던 송도관(松濤館)의 ‘도(濤)’를 차용했다.

청도관의 개관 시기를 놓고 논란은 여전하다. 이원국 관장은 1944년 개관했다고

93) 이원국(1969).『태권도교범』. 진수당.

94) 노병직은 1998년 8월부터 9월까지 태권도신문이 연재한 ‘태권도 현대사의 산증인 인물전 이원국 편’을 읽고, 자신의 제자인 태권도신문 사장 강원식에게 편지를 보낸 일부 내용.

주장하지만 1946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시천 교당에 '당수도 청도관'을 내걸고 첫 개설을 했다는 많은 신문 사료가 나왔기 때문이다.⁹⁵⁾ 청도관 개관 시기와 관련, 함께 일본유학을 한 노병직 관장은 이원국 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해방 직후 이원국 관장은 사설 치안대에 있었다. 그 당시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고 어수선했다. 서울시내에는 소속 불명의 사설치안대가 수없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그가 있는 치안대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때 청도관은 있지 않았는데, 이원국 관장이 청도관 제자들을 중심으로 자체 치안대를 결성해 치안대장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원국 관장은 사설 치안대에 있을 때 서대문구 옥천동 뒷골목에 있는 영신학교 강당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에서 완강하게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내게 말했다.”⁹⁶⁾

어쨌든 수련장으로 사용했던 시천 교당에서 이원국 관장은 예배 시간을 피해 오후 5시부터 밤늦게까지 수련생을 지도했다. 그 후 견지동으로 청도관을 옮겨 진급심사와 연무대회를 개최했다. 명동의 시공관에서 열린 연무대회는 한국 최초의 무술대회로 일컬어진다. 연무시범은 당수도 기술체계를 답습한 형과 권법이 주류를 이뤘다. 1946년 노병직 관장의 고향인 개성에 정식으로 송무관을 개관하자 손덕성, 엄운규 등 제자들을 이끌고 개성에 가서 연무시범을 했다.

당시 이원국 관장은 청소년이었던 엄운규를 수제자처럼 아꼈다. 마흔이었던 이원국 관장은 직접 몸으로 동작을 보여주기보다는 주로 말로 설명하곤 했다. 엄운규는 이원국 관장에게 앞차기와 돌려차기를 배웠지만 기본 발차기를 체형에 맞게 습득한 다음 뛰어 옆차기와 뒤돌아 옆차기, 뒤 돌려차기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창안했다.⁹⁷⁾

한국전쟁은 이원국 관장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서울에 들어온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주장과 한국전쟁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쳐 서대문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

95) 김영선(2018). 『현대 태권도의 원류, '오대관'의 형성과 사적(史的) 의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73.

96) 노병직. 1998년 10월 태권도신문에 보낸 편지.

97) 국기원(2017). 『태권도의 거장 외길 70년, 현대 태권도의 기틀을 다진 엄운규』.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p.35.

고 일본으로 갔다는 주장이 혼재한다.



그림 17. 1957년 경무대 상무관 앞에서 찍은 사진-엄운규(이원국의 제자)

이원국 관장은 왜 일본에 갔을까? 이에 대해 이원국 관장은 “청도관 제자들을 자유당에 입당시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해 이승만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를 받아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알고 지냈던 육군 중장이 보증을 서 겨우 풀려났다. 그 뒤 한국전쟁이 일어나 피난민 틈에 끼어 부산에 가서 그 때 돈으로 50만 환쯤인가 주고 다대포 앞바다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 갔다” 98)고 말한다.

하지만 노병직 관장은 이원국 관장의 주장을 반박한다.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부역하다가 서울이 수복된 후 들통이 나서 문초를 받던 중 간신히 풀려나 일본으로 도피했다는 것이다. 이원국 관장은 일본에 체류하면서도 청도관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등 사제 간의 인연을 유지했다. 1951년 1.4 후퇴 직후 제자인 손덕성에게 편지를 보내 청도관 제2대 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1959년에는 본인 명의로 된 청도관장 임명장을 엄운규 관장에게 보냈다.

그는 일본에서 당수도 청도관 심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다가 고국을 떠난 지 10년 만에 귀국했다. 1961년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원국 관장은 제자 엄운규, 이용우, 현종명, 남태희, 고재천, 백준기 등 제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98) 月刊中央(1994). 『특별초대석 종주국이 쫓아버린 태권도 시조 이원국 옹』. 12월호. p.318.



그림 18. 일본 귀국환영사진⁹⁹⁾

하지만 10년간의 공백은 컸다. 자신이 세운 청도관의 제자들은 30대가 되어 부쩍 성장했고, 군 장교 출신의 제자들은 최홍희 휘하로 들어가 오도관(吾道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최홍희와 제자들은 귀국 만찬환영회를 성대하게 열어주었지만 이원국 관장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원국 관장은 7년이 지난 1968년 청도관 제자들의 간청으로 고국에 또 왔다. 엄운규를 비롯한 제자들은 김포공항에서 ‘청도관 초대관장 이원국 선생 귀국’이라는 환영 펼침막을 들고 스승을 맞이했다. 이원국 관장은 태권도 심사대회가 열리고 있는 한성여고 체육관을 방문해 태권도 기술과 동작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 후 이원국 관장은 1968년에 『태권도교범』(1969)¹⁰⁰⁾을 출간했다. 이원국 관장은 제자 이준구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군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다가 그만두고 1994년 아내와 함께 귀국해 태권도 종주국에 태권도대학이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당시 그의 명함에는 ‘韓國 跆拳道 創始主 / 跆拳道 青濤館 總裁 李元國’이라고 써어 있었다.¹⁰¹⁾

99) 사진출처 : 이원국의 제자 신원미상(서성원).

100) 이원국(1968). 『태권도교범』 초판본. 서울. 진수당.

101) 서성원(2014). 『태권도 던(傳)』. (주)애니빅. p.27.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던 이원국 관장은 2003년 폐암으로 타계했다. 향년 97세였다. 미국에 있는 청도관 출신의 태권도인 들이 주축이 되어 장례식을 치렀다.

이원국 관장은 태권도 역사 학풍에서 태권도 전통주의 학설과 가라테 유입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대상이다. 그가 현재의 태권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세운 도장이 현대 태권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냉철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원국 관장이 저술한 『태권도교범』(1969)은 태권도 역사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목차는 제1편 총론, 2편 태권도의 조직, 3편 기본, 4편 형(型), 5편 대련, 6편 단련구와 단련법, 7편 인체의 급소, 그리고 부록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제정형으로 되어 있다.

2) 태권도의 의의와 정신

“태권도란 승패를 궁극적으로 하는 무술이 아니라 유형, 무형의 시련을 넘어서서 단련을 기초로 하여 땀을 흘리고 수련을 통해 인간완성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태권도란 무엇인가? 라는 적수공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의 모든 부분 특히 수족(手足)을 조직적으로 단련하여 무기वाद 같은 위력을 발휘 그 일격일축(一擊一蹴)으로 불시에 적을 쓰러트릴 수 있게 수련된 호신술이며 전신을 상하 전, 후 좌, 우로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움직여서 평상시에 그리 상용하지 않는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기 때문에 수족(手足)의 발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전혀 없는 극히 이상적인 체육이라 하겠다.”¹⁰²⁾

이 말은 태권도는 손발을 단련하여 돌발적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신술이며, 꾸준한 수련을 통해 인간완성을 위한 노력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태권도엔 선수(先手)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태권도의 단련과 수련은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단련과 동시에 정신수양을 함께 수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02)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p.29.

3) 태권도의 유래

이원국 관장은 태권도의 유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썼다. 인간은 태어나면 서부터 노쇠할 때까지 오관(五官)을 통하여 사지를 움직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태권도의 기원은 언제부터인지 단정할 수 없고, 발생 초기부터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적수공권(赤手空拳)에 의해 발달했다고 주장했다. “태권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권법으로 지금부터 1,400년 전 무제(武帝)때 인도의 달마대사가 중국소림사로 건너와 불교수도(佛教修道)에 지친 승려들을 위해 역근경이라는 심신운동법을 가르친 것에서 기원이 된 중국권법이요 태권도의 기원이라 할 수 있겠다.”¹⁰³⁾

이후 이조시대(조선시대) 태권이 전해져 왔지만 일제강점기에 사라졌고 본인이 10년간 일본 공수도의 아버지 ‘후나고시 기친(船越義珍)’의 기술과 오키나와 무술을 비교분석하여 1944년 서대문구 옥천동에 처음 한국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원국 관장은 태권도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의 소림사이며 조선시대 태권으로 이어오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졌고, 일본의 공수도와 오키나와 무술을 섭렵한 본인이 태권도를 보급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4) 태권도의 특징과 가치

이원국 관장은 태권도의 특징을 일곱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둘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셋째, 특별히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나 할 수 있다. 넷째, 도구가 필요치 않다. 다섯째, 신체상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여섯째, 균형 있는 신체를 형성한다. 일곱째, 개인으로도 단체로도 할 수 있다.

특히 태권도는 형(型)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유도나 씨름과 다르고 자기 힘을 조절해서 수련할 수 있으며, 형(型)의 소요시간은 1~2분 정도로 짧은 시간으로 몸의 피로가 많지 않고 꾸준히 수련하면 점점 강대해지는 이상적인 무술이요, 운동이라고 하여 형(型)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 태권도의 가치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상적인 호신단련법(護身鍛

103)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p.35.

鍊法), 둘째, 이상적인 건강장수법(健剛長壽法), 셋째, 정신수양법(精神修攘法)이다.¹⁰⁴⁾ 이는 현재 태권도의 품세의 가치 신체적 가치, 인지적 가치, 정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¹⁰⁵⁾와 비슷하다. 이는 1960년대 당시나 현재나 태권도의 의의가 변화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5) 태권도의 술(術)과 도(道)

‘사람이 있고서 기술이다’¹⁰⁶⁾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태권도의 기술은 위력적이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이므로 태권도를 수련함에 있어 실전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정신수양과 함께 항상 정의로운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은 기술을 통해서 정신을 체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술(術)이고, 도(道)라고 역설하고 있다.

6) 태권도와 예의

사범에 대한 예의는 물론 동료, 선배, 후배에 대한 예절과 형(型)과 대련(對鍊) 시 상대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련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며 본의(本義)에 순응하고 자기완성의 형태를 말한다.

7) 태권도 수련상의 중요점

태권도는 끊임없는 수련과 노력을 요구하며 같은 동작은 수없이 수련하다 보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기술의 수련을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태권도 수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다.¹⁰⁷⁾

8) 태권도의 조직(사용부위)

태권도는 손이 가장 중요하며 손을 쓰는 종류만 해도 크게 12가지가 된다. 그 중에서 주먹이 기본이 된다고 보았다. 태권도는 주먹에 의한 공방이 주를 이룬다고

104)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p.35-36 요약.

105) 국기원(2011). 『WTA 교육프로그램 발표 및 공청회』. 서울. 레인보우북스. p.77-79 요약.

106)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p.42.

107)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p.45.

했을 정도로 주먹의 사용 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종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정권(주먹), 배권(등주먹), 사곡지(편주먹), 중곡지(뱀주먹), 악곡(아금손), 수도 사지, 2지, 일지(손날), 내수도(손날등), 관수(손끝), 장심(바탕손), 사지절(바탕손 얼굴 홀터 내리기) 등 12가지라고 서술했다. 하지만 기술의 종류를 12가지로 서술하고 설명은 10개만 되어 있다. 이는 종류의 12가지의 표기가 잘못 기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용부위는 손이 10종류, 발이 5종류이며 머리, 손등, 팔굽, 팔, 무릎을 기타로 표기하였다. 서기는 6종류, 손기술 공격은 5종류, 손기술 방어는 9종류이며, 발기술의 공격은 7종류, 방어는 5종류로 나타났다. 태권도교본에 나타난 기술의 종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태권도교범』(1969)								
번호	사용부위			서기	공격	방어	발차기	
	손	발	기타				공격	방어
1	정권	전족장 (앞축)	머리	평행 서기	지르기	옆으로 막기 (밖에서 안)	앞차기	바깥차막기
2	배권 108)	족도	손등	발붙여 서기	수도 (치기)	젓혀막기 (밖에서 안)	옆차기	안쪽차막기
3	사곡지 109)	발바닥	팔굽	전굴 서기	관수 (찌르기)	밀쳐막기 (밖에서 안)	돌려차기	차올려 막기
4	중곡지	말 뒤꿈치	팔	후굴 서기	배권 ¹¹⁰⁾	끌어당겨 막기	틀어차기	옆차 올려막기
5	악곡 111)	발등	무릎	기마 서기	팔굽	틀어막기	뒤로 차기	젓혀차 막기
6	수도			정자 서기 (뒤굽이)		받아 넘기기	이단 앞차기	
7	내수도					쌍수막기	이단 옆차기	
8	관수 112)					상단 추켜막기		
9	장심 113)					쳐서 막기		
10	사지 114)절							
계	10	5	5	6	5	9	7	5
총계	52							

표 34. 『태권도교범』(1969)의 기술 종류

108) 현재 등주먹의 기술.

109) 현재 편주먹의 기술.

110) 배권은 2005년 현재 국기권교본의 등주먹과 동일함.

111) 현재 아귀손의 기술.

112) 현재 한 손끝 가위손끝 편 손끝을 포함 한 기술.

113) 현재 바탕손의 기술.

114) 형태는 편 손끝과 같으나 찌르는 것이 아니라 얼굴 등 약한 곳을 옆으로 훑어 내리는 기술.

기술을 손과 발, 공격과 방어, 또 안에서 밖, 밖에서 안으로 나눈 것이 특징이고, 발차기 또한 공격과 방어기술을 따로 설명하였다. 관수(손끝)나 주먹 등 여러 가지의 기술이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큰 기술로 나누어 큰 기술 안에 작은 기술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예: 관수=사지관수, 일지관수, 이지관수 등).

9) 기본

태권도에서 기본기술은 수많은 형태의 응용기술로 변화된다. 그 중 형(型)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로 선택해서 이것을 기본이라고 정리하였다. 그 기본을 지르기, 막기, 차기, 발 막기 4가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번호	지르기	막기	차기	발막기
1	중단전진	하단막기	앞차기(발올리기와 차지르기)	젓혀 차막기
2	횡진지르기 ¹¹⁵⁾	수도막기	옆차기(올리기와 차지르기)	
3	기마자세 지르기	상단 추켜막기 ¹¹⁶⁾	돌려차기	
계	3	3	3	1
총계	10			

표 35. 『태권도교범』(1969) 기본 기술

기본을 연습할 때는 전후, 좌우 등 다양한 방향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10) 형(型)의 의의

“예로부터 태권의 수련은 형을 중심으로 단련하여 왔다. 이는 공방기술의 연속체로서 형은 태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사도의 명인대가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고신하고 수련하여 연구한 결과 현양기면(現兩技面)에서 기본이 되는 묘기를 계통적으로 연속 구성하여 체계화시킨 임기응변의 이상기이다.”¹¹⁷⁾

115) 2005년 국기원교본의 옆지르기와 동일.

116) 2005년 국기원교본의 얼굴막기와 동일.

형의 중요한 의의를 세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는 ‘태권도에 선수(先手)가 없다’ 라는 정신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둘째는 상대를 알고 대하라는 뜻으로 함부로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잘 파악하라는 의미이며, 셋째는 형(型)은 상대의 공격을 방어한 후 즉시 공격하며 공격한 후 즉시 방어의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다. 한 가지 형(型)의 기술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며 하나의 기술이라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해해서 수련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11) 형(型)의 종류

형(型)은 그 유파별로 종류가 많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근육과 체력을 단련하는 소령류(昭靈流)와 경쾌하고, 민첩하고 하늘을 나는 제비처럼 빠른 움직임을 수련하는 소림류(疏林流)로 나눈다. 형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태극형		평안형		철기형 (내보진)				대한태권도협회 제정형	
1	태극 초단	22	평안 초단	20	철기 초단	33	발새형	40	태극1~2형	십진형
2	태극 2단	22	평안 2단	25	철기 2단	26	십수형	23	팔괘1~8장	지태형
3	태극 3단	22	평안 3단	23	철기 3단	35	연비형	30	고려형	천권형
4			평안 4단	27					금강형	한수형
5			평안 5단	23					태백형	신라형(일여)
									백제형(평원)	
계	3		5		3		3		19	
총계	33									

표 36. 『태권도교범』 형의 종류(준비, 바로자세 포함하지 않음)

117)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p.105-108 요약.

12) 대련의 의의

“대련이란 형의 숙련에 의해서 습득된 공방기의 변화호흡법 호신법을 실지로 부합시켜서 연습하고 활용, 체득하는 수단이며, 또한 대련을 함으로써 형에서는 습득할 수 없었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즉 호신술로서의 효과가 이것이다.”¹¹⁸⁾라며 형(型)에서 수련할 수 없었던 것을 대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대련이란 형(型)에서 수련한 공방기술을 응용하여 하는 일종의 형(型)이기 때문에 형(型)을 떠나서는 대련을 할 수 없고, 형의 응용기술이라고 형(型)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3) 대련의 종류

대련은 크게 약속대련과 자유대련으로 나누고, 다시 약속대련은 3보 대련과 1보 대련으로 나누고 응용대련은 좌대련, 단도대련, 장도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호신법을 응용대련의 하나로 분류함으로써 호신술 또한 대련의 한 종류로 보았다.

번호	약속대련	자유대련	응용대련
1	3보대련(3개)		좌(座)대련(20)
2	1보대련(21개)		단도대련(9개)
3			장(長)도대련(4개)
4			호신법(13개)

표 37. 『태권도교범』 대련의 종류

14) 단련구와 단련법

태권도에서 손발을 단련하는 것은 주로 권고대(주먹단련대)를 사용한다. 땅속에 약 1m정도 묻고 점점 얇게 하여 최소 1.7cm 정도로 130cm 정도 노출시키고, 폭은 9cm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았다.

손끝을 단련하는 것은 큰 통에 쌀을 담아놓고 이를 찌르는 단련을 한다고 했지만 손끝 단련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련법에는 정권, 배권, 수도, 팔굽, 관수 등을 단련한다.

118)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p.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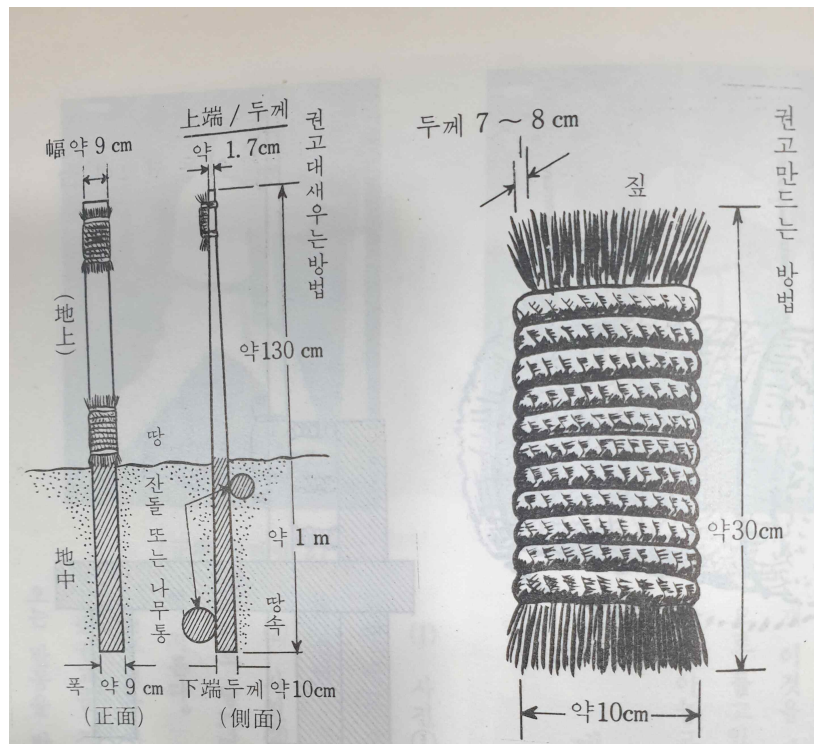


그림 19. 권고대 만드는 법.¹¹⁹⁾

15) 인체의 급소

태권도를 수련하는 자는 인체의 급소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급소는 타격이 유효한 신경을 가장 자극하기 쉬운 부분을 거의 모두 급소라고 했다. 인체의 전면 급소는 27개라고 보았고, 후면 급소를 11개로 나누어 놓았다.

16) 대한태권도협회 제정형(부록)

흥미로운 것은 대한태권도협회 제정형이다. 팔괘1~8장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1967년 11월 30일 그동안 연구, 개발한 새로운 형을 발표했다. 고려, 신라, 백제, 십진, 태백, 금강, 지태, 천권, 한수형 아홉 개다.¹²⁰⁾ 이 제정형이 이원국 관장의 『태권도교범』(1969)에 실렸다. 당시 백제형과 신라형은 현재 평원품새와 일여품새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 고려형은 연무선이 선비사(士)가 아닌 일자(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태극형 1,2형 수록되어 있는데 기존의

119)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p.261.

120)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서울. 주식회사 애니빅. p.88.

다른 교본의 기초형인 태극형과는 완전히 다른 연무선으로 매우 흥미롭다. 동작은 1형 2형 모두 26동작으로 되어있다고 수록되어 있는데 태극1형은 12동작, 태극2형은 26동작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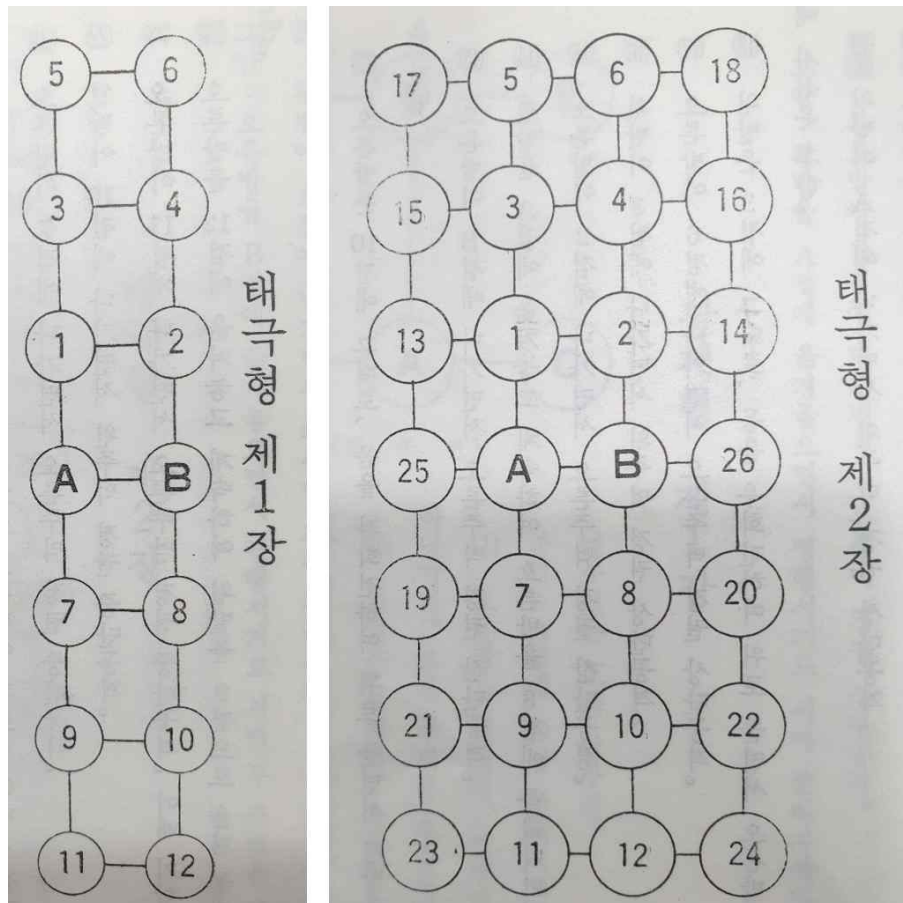


그림 20. 태극 1,2형 연무선¹²¹⁾

17) 『태권도교범』(1969)의 소결론

『태권도교범』은 기간도장(基幹道場) 중 현대 태권도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청도관 창설자인 이원국 관장이 집필한 책으로 태권도사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그의 제자 엄운규는 오늘날 태권도의 세계화를 이끈 인물로 태권도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내용과 기술의 종류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

121)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p.263-264 요약.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태권도의 유래는 『태수도교본』(1965)과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으며 고대 중국 소림사에서에서 영향을 받았고, 조선시대 태권과 일본 공수도, 그리고 오끼나와 무술을 골고루 섭렵한 집필자인 이원국 관장이 연구하여 한국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책의 내용은 가라테 이외에 태권과 오끼나와 무술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는 문헌이나 사료는 없었다.

둘째, 이 책에서는 술(術)과 도(道)를 구분했는데 술(術)은 기술로써 도(道)를 수련하는 것이 먼저이며 ‘사람이 있고서 기술이다’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태권도를 배우는 진정한 목적은 정신수양과 인격 완성에 그 목적을 두었고, 실전 기술도 꾸준히 반복하여 수련하며 정의로운 곳에 사용하는 것이며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태권도가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이 책에서 사용부위는 총 20개로 나누었고, 서기 6개, 손 공격 5개, 방어 9개, 그리고 발차기 공격기술 7개, 방어기술 5개로 나누었다. 공격기술과 방어기술을 크게 구분했고, 그 속에 세부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형식을 띄었지만 간혹 설명이 충분치 않거나 기술의 사진이 바뀌었다고 따로 표기하는 등 오류를 발견하였다. 120p 사진 19와 21의 위치를 교체하고 263p 사진(정권단련법1)은 배권 단련법으로 잘못 사용되었고, 182p의 사진은 시선과 좌우 발이 반대, 240p는 공방자의 위치와 손발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태권도교범』(1969)								
	사용부위				손기술		발차기	
명칭	손	발	기타	서기	공격	방어	공격	방어
계	10	5	5	6	5	9	7	5
총계	52							

표 38. 『태권도교범』(1969) 기술의 종류

넷째, 대한태권도협회 제정형인 고려, 신라, 백제, 십진, 태백, 금강, 지태, 천권, 한수형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백제형은 평원 품세로, 신라형은 일여품새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고려형은 연무선이 선비사(士)가 아닌 일자(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기초형인 기존의 태극형 1~3형과는 다른 연무선으로 독창적인 형태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 태극형이 어떻게 제정되었고, 누가 개발했는지는 추정할 수 없었다.

4.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의 분석¹²²⁾

1) 저자 소개

현대 태권도의 원류 기간도장(基幹道場) 중에서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창설자 전상섭 관장이다. 그의 제자인 이종우 관장은 도장 명칭을 ‘지도관(智道館)’으로 개칭하고, 태권도의 경기화와 전자호구 개발 등 태권도 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종우 관장이 집필한 『태권도교본 품세편』은 현재도 매우 중요한 태권도 서적이자 사료이다. 기존의 교본과는 다르게 가라테 형을 모두 배제하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품세제정위원회를 통해 연구한 태권도 동작과 기술을 토대로 대한태권도협회 최초로 펴낸 공식교본이다.

122) 2022년 현재 품세를 1972년 당시 품세(品勢)로 사용하였으므로 원문을 살리기 위해 품세로 표기.

구분	내용
제목	『태권도교본 품세편』 (1972)
최초발간	1972년 12월 01일
양장본	1975년 4월 25일
엮은 이	대한태권도협회 이종우
펴낸 곳	삼일 서적
가격	8,000원
페이지 수	301p

표 39. 서적의 발행정보

이종우 관장은 1928년 서울 창신동에서 태어났다. 성북구 돈암동 정릉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 소년단에 들어가 활동했다. 1946년 3월 친구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듣고 18기 무술을 배우기 위해 조선연무관 권법부(朝鮮鍊武館 拳法部)에 입관했다. 그 곳엔 배영기, 전일섭, 김복남 등이 먼저 들어와 수련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종우 관장의 회고담 내용이다.

“해방 직후였다. 사춘기의 꿈이라고 할까. 17세 무렵 막연하게 무림의 고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소공동에 가면 18기를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다. 그 곳이 바로 일제 강점기 시절 유도 도장이었는데, 그때는 조선연무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유도부와 권법부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권법부에서 가라테를 배운 거다. 권법이 바로 일본 가라테다. 일본말로 부르면 국민감정도 있고 하니까 권법이라고 부른 것이다.”¹²³⁾

이종우 관장은 1949년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응용미술학과에 진학했지만 이듬해 한국전쟁이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3단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이종우는 부산 피난 시절, 주위의 도움으로 국제시장 근처에 있던 건국대 부속 유치원을 빌려 무술을 가르쳤다. 또 당시 학생유도연맹 부위원장이었던 친구 김인화

123) 이종우(2002). 『태권도 과거, 충격적 고백』. 신동아. 4월호. 인터뷰.

등과 함께 대한공수도연맹을 결성하는데 앞장서며 그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는 등 무술 단체의 조직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림 21. 1960년대 지도관 홍천 동계수련- 맨 앞쪽이 이종우 관장¹²⁴⁾

이종우 관장은 1953년 휴전 협정 전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어수선한 서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고심 끝에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형의 권유에 따라 보름간 조수로 일했지만 돈벌이는 시원찮았고 폐결핵에 걸려 피로가 쉽게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청에서 부산 피난 시절 인연을 맺은 사람(사업가)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적성에 맞지 않는 택시 조수 일을 그만둔 이종우 관장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하여 서울에 백화점을 개점하고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다. 그 후 6개월 만에 상무이사가 됐지만 백화점 업무를 등한시하면서 젊은 혈기를 탕진한 끝에 백화점은 부도가 나고 말았다. 이제 이종우 관장이 갈 곳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종우 관장은 전쟁 중에 전상섭이 북으로 납치되자 조선연무관에서 사범으로 활동했던 윤쾌병에게 제안해 1954년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지도관(智道館)’으로 개칭했다. 당시 별도의 사무실과 수련장이 없었던 지도관은 을지로 3가에 위치한 한국체육관에 등지를 틀고 혼란한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당시 한국체육관은 권투·유도·역도·펜싱 등을 가르치는 종합체육관이었다.

124) 사진출처 : 지도관.

그런데 한국체육관에 먼저 들어왔던 이교운 관장과 불편한 처지가 됐다. 한국체육관 부관장이 이종우 관장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교운 관장은 한국체육관을 나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한무관(韓武館)을 개관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한무관의 뿌리는 지도관이 아니라 조선연무관” 이라고 강변했다.

그 후 이종우 관장은 본격적으로 지도관의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1년에 1~2회 특별교육을 통해 호신술과 접골 등을 교육할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그리고 대한공수도협회가 실시한 공인 승단심사에 응심해 손덕성·엄운규·이남석·현종명 등과 함께 4단을 취득했다. 승단심사는 실기로 했는데, 당시 이종우는 맹장염에 걸려 서류심사만 받았다.

1950년대 후반 국내 무술(무도)계에는 공수도·수박도·화수도·권법·태권도 등의 명칭이 난립했다. 그 때 군세(軍勢)를 등에 업고 당시 군 장성이었던 최홍희 관장의 오도관과 청도관 세력을 결집시켜 1959년 대한태권도협회를 창립했다. 당시 대한체육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는 6개 관(館)의 대표가 모여 통합체 구성에 합의했다. 초대 회장은 청도관 명예회장이자 오도관 관장인 최홍희 관장이 맡았고, 부회장은 송무관 관장인 노병직 관장과 지도관 대표인 윤쾌병 관장이 맡았다.

당시 이종우 관장은 지도관의 서열상 윤쾌병 관장을 모시는 위치였지만 현종명, 고재천 등과 함께 상임이사에 선임됐다. 그러나 이종우 관장은 최홍희 관장의 주도로 창립한 대한태권도협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태권도’를 주장하는 최홍희 관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¹²⁵⁾

그러던 중 1961년 5월 박정희에 의해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당시 문교부는 국가 재건최고 회의 포고령에 따라 유사단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수도(跆拳道)로 할 것을 제안했고, 표결에 붙인 결과 6표 중 4표(기권 2표)를 얻어 협회 명칭은 대한태수도협회로 결정되었으며 이런 결과를 이종우 관장은 수용했다. 손을 펴는 것(手)이나 쥐는 것(拳)이나 마찬가지로 본 셈이다. 결과적으로 대한태수도협회가 창설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은 이종우 관장과 엄운규 관장이었다.

당시 대한태수도협회의 현안은 각 관(館)의 유단자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관별로 행해지던 형과 대련, 격파 등의 기술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심사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때 이종우 관장은 이남석, 엄운규, 이영섭, 박철희 등과

125) 서성원(2014). 『태권도 던(傳)』. 서울. (주)에니빅. p. 376-377.

함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초대 회장 채명신(당시 군사혁명위원회 감찰위원장)이 군 내부 문제로 회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협회의 실질적인 업무는 부회장이었던 이종우 관장과 엄운규 관장이 맡았다.

하지만 1965년 당시 최홍희 장군이 다시 대한태수도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이종우 관장은 1971년 김운용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대한태권도협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잡았다. 당시 김운용 회장은 이종우 관장을 각별하게 예우하며 그를 통해 태권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상했다.

1972년 이종우 관장이 엮어서 펴낸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은 그가 얼마나 태권도 기술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이 책의 서두에서 “만권의 책을 읽기보다 한 권의 책을 만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현 국기원) 건립 당시 건설 본부장으로 활동한 그는 1977년 8월 관(館) 통합을 위한 총 본관의 부관장을 엄운규와 맡아 이병로, 강원식과 함께 관 통합을 주도해 나갔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 전무로 재직하며 관 통합에 앞장섰던 강원식은 평소 “(태권도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종우가 많은 힘을 보태줬다”¹²⁶⁾고 평가했다.

126)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태권도신문 사장을 역임한 강원식은 이종우가 엄운규보다는 태권도 발전에 더 기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22. 1972년 제1기 지도자교육-이종우¹²⁷⁾

1960~70년대 태권도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종우 관장은 1980년대 초 뜻밖의 시련을 겪었다.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후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사회정화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바람이 태권도계에 밀어닥쳤다. 당시 정부 당국은 태권도 제도권을 비리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김운용 총재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임원과 각 관(館) 관장들의 사표를 강요했다. 서슬 퍼린 군사정권 분위기에서 사표를 거부할 사람은 없었다. 이종우 관장, 엄운규 관장 등도 사표를 내야만 했다. 사표를 낸 후 김운용 총재는 이규호 문교부장관에서 건의해 이종우 관장과 엄운규 관장 등을 임원으로 복직시켰다.

1990년대가 흘러갔다. 건강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태권도에 대한 미련은 떨쳐 버릴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안 재야 원로로 있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 왔다. 1999년 8월, 그는 국기원 연수원 담당 부원장으로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를 결코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127) 사진출처 : 이종우(1972년 4월 4~7일까지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제1기 지도자교육을 하는 모습.

이종우 관장은 주위의 이러한 시각을 냉철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종우는 ‘태권도 발전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며 배수진을 쳤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론 정립에 여생을 바치겠다며 태권도연구소 설립에 집념을 보였다. 태권도 원로 중 태권도 기술과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던 이종우는 심판 판정의 부조리가 계속 발생하면 결국 태권도의 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판정 시비 해결책으로 전자호구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대 태권도의 종합 설계자’라는 별칭을 얻은 이종우 관장은 2002년 국기원 부원장을 사직한 후 요양원에서 지내다 2015년 타계했다. 정부는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여했고, 국기원은 태권도 10단을 추서했다. 2016년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주관한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로 선정됐다.

2) 태권도의 정의

이종우 관장은 이 책에서 ‘태권도는 하나의 행동철학이다’라고 역설했는데 태권도의 모든 동작은 자아방위 본능에서 출발했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행동단계에 이르는 동시에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의 경지에 도달하는 철학적 요소를 지닌 체육으로 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정리했다.

(1) 태권도의 정신적 의의(내적인 의의)

태권도는 전신운동이며, 온몸을 자극 발달시켜 힘차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생성하고 살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지(知)와 이(理)를 깨닫는 집합체로서 의욕을 육성하여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되는 인격형성의 길잡이이며, 통솔력과 인내심, 강한 담력 등 자신감을 길러준다고 주장했다.

“반응력→판별력→담력→자신
수련→자신력→자위, 자주→자립→의연
통솔력→용기, 협동→애족→애국 “128)

128)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 14-15 요약.

(2) 태권도의 체육적 가치성(외적인 의의)

태권도는 전신을 움직이는, 한마디로 종합운동이다. 외적 환경이란 살아가기 위한 필연적 관계를 뜻하고, 외적환경의 질서와 기능 균형을 보전하기 위해 태권도의 수련이 필요하다.

“또 태권도는 중요관절을 무기화 하는 무술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전후, 좌우의 공방을 민첩하게 연결하는 품새가 있고, 지르고 차는 기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겨루기가 있다. 그러나 위험한 급소를 보호하기 하고 안전한 겨루기를 위해 호구(보호대)가 있으며 실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격파를 통해 나의 수련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¹²⁹⁾

3) 태권도의 발생 과정과 형성

이종우 관장은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호본능이 있고, 태권도의 기원은 인류가 지구상에 발을 내딛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원시인류의 자기보호본능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에 인간의 경험과 창의력이 결합되어 적절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태권도에 이른 것이라고 역설했다.

(1) 고구려 각저총과 무용총 벽화에 나타난 태권도 원형의 실증

“고구려 각저총과 무용총 벽화에 나타난 태권도 원형의 실증은, 고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나타나 있는데, 각저총(角觝塚), 삼실총(三室塚) 등에서 볼 수 있고 고구려 사람들은 벽화에 그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태권도를 수련했는데 이는 벽화 원형이 그대로 입증해준다.”¹³⁰⁾라고 주장했다.

(2) 신라시대의 화랑과 태권도의 실증

“신라시대의 화랑과 태권도의 실증, 신라시대에 화랑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화랑제도를 만들어 소년들을 선발된 젊은이들이 모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수박(手搏), 이 오늘날의 태권도 종목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

129)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 14,15 요약.

130)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 16,17 요약.

중 하나가 석굴암의 금강역사상과 『제왕운기(帝王韻紀)』에 나타난 탁견술과 옛 풍습인 비각술이 있었는데 다리를 차고 잘하는 자는 어깨 차고 비각술이 있는 자는 상투를 찼다고 주장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널리 퍼져 있음을 사기와 고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¹³¹⁾

(3) 백제의 무예

“백제의 무예는 백성 전체가 말 타기와 활쏘기, 태권 등을 하나의 놀이로 삼았다고 서술했지만 고구려나 신라보다 태권에 실증 자료를 찾을 수가 없지만 기록이 없다하여 태권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역설했지만 당시 태권도를 했다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¹³²⁾

(4) 고려시대의 수박희

“고려시대의 수박희는 고려시대 무신을 경시하고 문관을 숭상하는 풍조로 정중부의 무관의 난이 일어났고 그의 휘하에 이의민이 무술을 매우 잘해 오병(五兵)에 수박희를 행하도록 하였다. 수박희는 오늘날의 태권으로 고려시대에 태권은 크게 성행했다고 서술했다.”¹³³⁾

(5) 이조(조선)시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태권의 결실을 맺은 것이 이조(조선)시대에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다.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에서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서 태권도의 무기 사용법까지 수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임진왜란 때 왜병과 맨손으로 싸웠다는 것은 태권으로 백병전을 했다는 뜻이라고 서술했다. 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태권인들은 무기 없이 항일투쟁에 나섰다고 주장했다.”¹³⁴⁾

(6) 태권도에 필요한 역학적 풀이

태권도가 무조건 단련과 수련이 아닌 과학적 접근을 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의 원

131)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18 .

132)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18 .

133)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19 .

134)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 18-23 요약.

리를 연구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창안한 것이다. 뉴턴의 제1법칙은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로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뉴턴의 제2법칙은 $\text{힘} = \text{질량} \times \text{가속도}$, 뉴턴의 제3법칙, 모든 작용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가지는 반작용이 있다. 이러한 과학적 논리를 통해 태권도가 과학적으로 강한 무술이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물체와 인체는 중심이 있는데 인체의 중심은 척추를 말하며 지지면(支持面)이 낮을수록 중심은 안정된다고 보았다. 주먹을 지를 때 골반(중심)을 이동하면서 지르기를 해야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속도는 중심고가 지지면에서 높을수록 빠르며 잘 돌아간다고 보았고, 속도를 잘 내기 위해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태권도의 품새는 유연성 그 자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연습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신경은 수백가닥으로 나누어진 근육섬유들로 이 신경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며, 이는 정신집중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신집중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호흡은 태권도에서는 기르기를 할 때 호흡을 뱃고 타격을 할 때 호흡을 중지시켜 큰 힘을 낼 수 있다. 호흡을 중지하거나 내뱃거나 들이마시는 것이 호흡조절이고, 이는 힘을 운용하는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태권도의 수련에 있어 중심, 속도, 신경(정신집중), 호흡을 자유자제로 조절하는 훈련을 터득하는 것이 태권도의 파괴력을 갖는데 중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¹³⁵⁾

4) 기본동작, 특수동작¹³⁶⁾

손의 사용부위는 14종류이고, 발의 사용부위는 6종류로 나타났다. 서기는 14종류로 다른 교본에 비해 기술이 많아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손기술의 공격은 17종류, 방어는 26종류로 손기술은 공격보다 방어의 기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기술의 공격기술은 14종류 나타났고, 발기술의 방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른 교본에서 안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안으로 차내는 방어기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발기술은 방어보다 공격기술에 더 치중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집필자의 생각을 추정할 수가 없다. 『태권도교본 품세편』 기술의 종류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135)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 24~26, 요약.

136) 특수동작은 두 동작 이상 연결한 기본을 하나의 명칭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권도교본 품세편』 (1972)							
번호	사용부위		서기	공격(손)	방어(손)	발차기	
	손	발				공격	방어
1	주먹	앞축	편히서기	지르기(반대, 바로)	얼굴막기	앞차기	
2	등주먹	뒷축	모아서기	내려지르기	몸통막기	옆차기	
3	메주먹	발날	주춤서기	옆지르기	아래막기	둘러차기(앞,뒤)	
4	편주먹	발	앞주춤	치지르기(치치기)	옆막기	반달차기	
5	밤주먹	발등	앞굽이	ㄷ자 지르기	해쳐막기	후려차기	
6	손날	무릎	앞서기	돌려지르기	엇걸어막기	비틀어차기	
7	손날등		뒷굽이	편손끝찌르기	손날막기	잡고차기	
8	바탕손		범서기	손날치기	몸통바깥막기	몸돌려차기	
9	아금손		꼬아서기	챗다리지르기	외산틀막기	굴러차기	
10	편손끝		학다리서기	당겨턱치기	가위막기	뛰어몸돌려차기	
11	가위손끝		겹손	명에치기	끌어올리기	뛰어 높이차기	
12	팔목		보주먹	금강앞지르기	명에빠기	두발당상차기	
13	팔목(4면)		통밀기	바탕손치기	학다리의산틀막기	뛰어모듬발차기	
14	팔굽		날개펴기 (주먹일 경우 날개치기)	뒤 지르기	돌쩌귀	표적차기	
15				숫음치기	태산밀기		
16				표적치기	학다리 돌쩌귀		
17				금강 옆지르기	바위밀기		
18					거들어막기		
19					황소막기		
20					큰 돌쩌귀		
21					손바닥 거들어막기		
22					산틀막기		
23					금강몸통막기		
24					제비품턱치기		
25					허리치기		
26					제비품(목치기)		
계	14	6	14	17	26	14	0
총계	91						

표 40. 『태권도교본 품세편』 기술의 종류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에서 기술의 종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국기원 『태권도교본』(2005)의 단초가 되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서 발막기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막기가 1972년 이후에 개발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복되는 기술이 있었고, 모두 한글로 표기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품세의 종류

번호	팔괘품세	동작수 137)	유단자품세	동작수	태극품세	동작수
1	1장	20	고려	30	1장	18
2	2장	20	금강	27	2장	18
3	3장	22	태백	26	3장	20
4	4장	24	평원	25	4장	20
5	5장	35	십진	31	5장	20
6	6장	19	지태	28	6장	23
7	7장	22	천권	27	7장	25
8	8장	35	한수	27	8장	24
9			일여	23		
계	8		9		8	
총계	25개					

표 41.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 품세의 종류

6) 지도상 유의점

지도자는 안전하고 좋은 기술과 훌륭한 정신자세를 지도 육성,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맹목적 답습보다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고 기술적으로 창의성과 과학적 이론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³⁸⁾ 그러기 위해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인의 능력 발굴, 둘째는 기술 향상이 정제될 때 또는 수련 상 권태기의 종류를 네 가지 설명했고, 셋째는 수련 의욕을 생기게 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수련 과정표를 작성하여 책에 삽입했는데 간단하게라도 교육과정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수 련 과 정 표

※ 수련과정표는 항목만으로 지도상의 과정을 급과 단별로 작성했다. 도장에 입관할 때 부터 순차적으로 지도체계를 잡아 간다면 그 진도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수 련 과 정			수 련 과 정		
무 식 기	기 본 지 식	초심자의 마음가짐	보 과 단 정	품세팔괘 6장	
		수련상의 주의사항		품세팔괘 7장	
		예의규범		품세팔괘 8장	
		태권도약사		품세고려	
		태권도를배우는목적		태권도역사	
	기 초	몸품기운동	중 단 정	품세금강	
		주먹형태취는법		품세태백	
		손날형태취는법		품세평원	
		지르기		품세심진	
		찌르기		고 과 단 정	거루기와품세응용
서기	흥기와태권방어법				
걸기	호신술				
차기	특수기술				
막기	격파술				
1 급	과 정	맞춰겨루기	과 단 정	지도지침	
		품세팔괘 1장		품세지태	
		품세팔괘 2장		품세천권	
		품세팔괘 3장		품세한수	
		주먹손권히기 (적과기본)		품세일여	
	초 보 과	뛰어차기	7 단 정	거루기연구	
		굴러차기		호신법연구	
		품세팔괘 4장		특수기술연구	
		품세팔괘 5장		역학적연구	
		금소해설		체육학적이론	
2 급	정	겨루기	과 단 정	지도법연구	
		막기의변화		고대기술연구	
		차기의변화		무도사연구	
		지르기의변화		품세의분석연구	
	3 급	초	8 단 정		

284

그림 23. 수련과정표¹³⁹⁾

137) 준비와 바로는 동작 수에 포함되지 않음.

138)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282.

7) 대한태권도협회 예의규범

이 책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의 예의규범에 대해서도 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높고 값진 인격의 기본이다. 예의규범을 통하여 이 지구위에 있는 모든 태권도 가족에게 같은 도복과 띠를 두르고 바르고 품위 있는 예의로서 높은 인품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이로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긍지와 태권 한국의 보람을 갖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부터 여럿이 모이는 집단을 이루면 이는 단체이며 조직인 것이다. 조직은 규율이 확립되어야 질서가 유지된다. 더욱이 청소년이 모이는 곳에 더 한층 규율과 질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마련이다. 과잉된 젊음을 선도하는 데는 무엇보다 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도의는 예의에서 첫 발이 시작된다. 예의는 단정한 마음과 겸양의 태도라야 한다. 그렇다고 비굴한 태도는 버려야 하며 자존심을 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의인 것이다. 고상하고 정확한 말씨와 아아한 몸가짐 단정하고 절도 있는 태도는 건전한 현대 생활인의 지혜이며 공동생활의 화목과 단결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이유와 필요성에 따라 여기 대한태권도협회는 예의규범을 제정한다.” 140)

위의 글은 읽어보면 청소년에 대한 규범을 강조하였고, 전 세계로 태권도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예의규범은 18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인 설명도 적혀져 있다. 원문을 읽어보면 197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용들로 그 시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직에 대한 필요성과 단결 등을 강조한 것은 격동하는 1970년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139)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284.

140)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p.285.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	태권도인 예의의 각도와 자세	10	식사
2	도장, 방 마루에 앉아있을 경우	11	사교장에서 지켜야 할일
3	도장에서	12	방문
4	도복 착용과 간수	13	수행
5	사회와 가정에서	14	의식과 자리배정
6	대화를 나눌 때	15	음주와 흡연
7	복장 및 용모	16	지도자(과장 및 사범)자세
8	승차	17	띠 매는 법
9	전화	18	도복 접는 법

표 43.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 예의규범의 종류

8) 대한태권도협회 규약(規約)

대한태권도협회 규약도 맨 뒷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등의 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9)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의 소결론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은 현재 태권도교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교본으로 태권도교본이 한글화 되고 체계적인 기술을 갖추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책이다. 또한 이 책을 집필한 이종우 관장은 오늘날 태권도의 기술을 정립하고 태권도 전자호구를 개발했을 뿐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를 역임한 태권도계의 큰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내용과 기술의 종류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식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가 내놓은 최초의 책으로 기록되며 심혈을 기울여 연구 개발한 유급자 품새 태극1~8장이 최초로 수록되어 학교체육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교본 품세편』 (1972)							
명칭	사용부위		서기	공격(손)	방어(손)	발차기	
	손	발				공격	방어
계	14	6	14	17	26	14	0
총계	91						

표 43 『태권도교본 품세편』 (1972) 공방기술의 개수

둘째, 태권도의 역사를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 태권도로 변화했다는 논리에 대하여 다양한 근거와 사료를 제시했지만, 각저총이나 무용총은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찾기에 부족하다. 이것에 대하여 태권박스 서성원 편집장은 “이제 고구려 무용총 벽화와 통일신라 석굴암 금강역사상을 그럴싸한 허구의 논거로 태권도에 우겨넣으려는 관점은 바로잡아야 한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을 태권도와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말이 아닌 글로 쓴 사람은 드물다.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1990)에서 김용옥 학자가 금강역사가 태권도의 막기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오류를 반복해선 안된다. 라며 설파한 것이 눈에 떨 뿐이다.”¹⁴¹⁾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태권도의 역사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맨손무예를 태권도에 포함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며, 이 책에서 제시한 많은 사료와 근거는 인류역사와 함께 해온 보편적 근거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책에서 사용부위는 총 20개로 나누었고, 서기 14개, 손 공격 17개, 손 방어 26개, 그리고 발차기 공격기술 14개로 나누었다. 흥미로운 것은 『당수도교본』 (황기, 1958), 『태

141) 서성원(2022). 『금강역사상+태권도 결부, 풍토를 반박하며』. 태권박스 미디어. 06월 03일, 기사 내용 요약.

수도교본』(이교윤, 1965),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에서는 발에 의한 방어기술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발막기 방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차기기술에 비해 종류가 적고 차기기술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할 수 있다.

넷째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에서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빠르고 강한 무술인 동시에 스포츠로써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제 2법칙 $\text{힘} = \text{질량} \times \text{가속도}$, 제3법칙 모든 작용은 반대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가지는 반작용(작용, 반작용)이 있다는 과학적 논리를 통해 스포츠 태권도라는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는 한편, 강하고 빠른 무술이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설득력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는, 이 책에서는 모든 기술의 명칭을 한글화 하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다른 태권도교본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당수, 공수, 평안, 철기, 등 가라테나 중국무술의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기술과 명칭이 사용됨으로써 한국무예스포츠로써 세계화를 준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이번 연구는 전문이론가들의 연구와 주장을 분석, 비교하는 연구방법인 문헌연구를 선택하였다. 문헌연구는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포한 각종 출판물을 말하며, 연구 상황과 출판물 저자의 관계에 따라서 기본 자료 혹은 1차 자료(primary source)와 보조자료 혹은 2차 자료(secondary source)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주로 1, 2차 자료와 전문가회의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시대별로 출간된 『당수도교본』(황기, 1958), 『태수도교본』(이교운, 1965),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 등 총 4권의 태권도교본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1950~60년대는 한국전쟁의 상처와 전후 복구사업, 사회적 불안이 함께 맞물려 태권도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이 태권도교본을 출간하는 형태를 띠었으며, 1972년 『태권도교본 품세편』을 제외한 나머지 교본들은 중국무술이나 가라테의 기술들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혼란한 사회적 시기에 우리 고유의 무술을 연구하려는 노력보다는 비슷한 구성을 갖추어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 내려는 불안한 사회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태권도의 유래를 두고 각 책들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당수도교본(황기, 1958)에서는 중국에서 달마대사에 의해 불제자들의 약한 몸을 보안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태수도교본』(이교운, 1965)은 그동안 종전에 불리던 공수도, 당수도, 권법, 태권도, 수박도 등 여러 명칭을 통합하여 이론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시켜 만들어 낸 무예스포츠라고 주장했다. 『태권도교범』(1969) 또한 중국 소림사의 불교수도의 심신운동법에서 기원했고, 이조시대(조선시대) 태견이 그 뿌리에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는데 이 책의 필자인 이원국 관장이 일본 유학시절 공수도의 대가 후나고시 기친(船越義珍)과 오끼나와 무술을 비교분석하여 1944년 서대문구 옥천동에 처음 한국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일부 공수도의 차용을 인정했다.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자기보호본능이 시작되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체계화 되어 삼국시대의 각저총, 삼실총, 금강역사상, 수박희 등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고, 『제왕운기(帝王韻紀)』에 나타난 탁견술과 비각술이 태권도의 원형이

라고 주장했다. 조선 후기 무예훈련교본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가 태권도의 역사적 사료로 남아 있고 일제강점기 때 태권의 영향을 받은 태권도인이 항일투쟁에 나섰다 주장했다. 이는 태권도의 뿌리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무술로 남기려고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에도 이 논쟁은 뜨거운 쟁점이다.

셋째, 각 교본의 시대별 기술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교본 명칭	『당수도교본』 (1958)	『태수도교본』 (1965)	『태권도교범』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1972)
손 사용부위	15	21	10	14
발 사용부위	6	6	5	6
기타			5	
서기	11	9	6	14
손기술(공격)	10	5	5	17
손기술(방어)	18	9	9	26
발기술(공격)	14	13	7	14
발기술(방어)	2	2	5	
총계	76	65	52	91

표 45. 교본들의 기술의 개수

『당수도교본』(황기, 1958) 기술의 총 개수는 76개, 『백만인의 태수도교본』(이교윤, 1965)에서 정리한 기술의 총 개수는 65개,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 기술의 총 개수는 52개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은 기술의 개수는 91개로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는 기본기술을 세분화 하고 기술체계를 체계화시키는 동시에 모든 명칭을 한글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작업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태권도교범』(1969)에 수록된 태극형(기초형)은 『당수도교본』(1958), 『백만인의 태수도교본』(1965) 등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연무선인 공(工)의 태극형(기초형)과는 전혀 다른 연무선인 1자(숫자)의 동작으로 만들어졌다. 동작이나 기술은 다른 책들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태권도계에 알려지지 않은 연무선에 가라테의 태극형(기초형)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태권도교범』(1969)의 기초형은 차후 연구과제로 연구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다섯째,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과 『태권도교본』(대한태권도협회, 1972) 두 권의 교본에서는 특별히 호신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지만 『당수도교본』(황기, 1958)에서는 호신술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보신법’이라고 명칭을 사용했으며, 당수도는 정신을 수양하는 무술임으로 보신법은 중요하지만 당수도의 기간(基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만인의 태수도교본』(이교윤, 1965)에서는 호신술의 의의를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보호에 그 뜻이 있으며 호신술은 정의로운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설명을 하고 있다.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과 『태권도교본』(대한태권도협회, 1972) 두 권의 교본에서는 특별히 호신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태권도교범』에서 호신술을 응용대련이라고 대련(對鍊)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태권도교본 품세편』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쟁으로 남아 있는 태권도 자체가 곧 호신술이란 주장과 태권도와 호신술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당시에 도 오늘날과 유사하게 태권도와 호신술의 관계를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여섯째, 모든 교본의 공통된 특징은 태권도는 일격필살로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지만 신체만을 수련하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니라 심신단련과 함께 정신수양을 최고의 수련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교본의 서로 다른 점은 『당수도교본』(황기, 1958)에는 응급처치법이 들어가 있고, 『태수도교본』(이교윤, 1965)에는 기식법(氣息法)과 최초의 태권도 경기규정,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에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개발한 최초의 형인 팔괘형과 유단자 형이 들어가 있으며,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은 태권도 명칭을 한글화 하려고 노력했으며 태극 품새가 최초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대가 흐르면서 각각의 태권도교본에서 사용되는 기술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술의 변화는 1960년 초반부터 급소 앞에서 끊어주는 전통적인 무술 수련방식에서 보호구를 입고 직접타격을 사용한 무에스포르츠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V.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태권도교본의 변천과정과 기술의 변화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고 태권도 용어가 한글로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을 확보하는데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태권도 기술의 신뢰도와 타당성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통해 태권도 기술과 교본의 변천과정이 우리나라 태권도 역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보고서 형태로 개발되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태권도교본의 변천과정을 출판물로 제작하면 도장에서 태권도 기술의 역사를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태권도지도자들의 전문성과 교육역량이 향상시킬 보인다. 특히 국립태권도박물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태권도교본의 역사성을 알려줌으로써 태권도의 우수성과 역사적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끝으로 이번 연구는 『당수도교본』(황기, 1958), 『태수도교본』(이교윤, 1965), 『태권도교범』(이원국, 1969), 『태권도교본 품세편』(대한태권도협회, 1972)을 시대별로 비교분석하였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교본의 체계를 이 4권의 교본만으로 모든 기술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물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본으로 추정되는 『화수도교본』(1949)을 비롯해서 『파사권법』(1958), 『ITF태권도교본』(1958) 등 더 많은 교본을 참조하여 변수의 한계를 최소화 하고, 교본이 태권도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한다면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향후 추진 계획

이번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정한 4종의 태권도 교본만으로는 태권도교본의 변천 과정 전부를 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화수도 교본』(1949), 『권법교본』(1955), 『파사권법』(1956), 『ITF 태권도교본』 등 다양한 교본을 선정하여 더 많은 전문연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태권도교본의 비교분석을 한다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태권도교본의 변화과정이나 기술용어의 변천과정을 더 상세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발비의 투자와 연구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태권도교본의 변천과정, 태권도 기술의 변천사, 태권도 전공생들을 위한 태권도 교본의 참고자료, 태권도 문화의 확장을 위한 태권도용어 한글화, 태권도교본의 시대별 해설서, 태권도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태권도 지도자들을 위한 기술지침서 등 다양한 태권도교본의 연구결과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94년 전국의 태권도장은 3,469개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태권도장은 9,929개로 26년 전에 비해 무려 3배가 증가했다.¹⁴²⁾ 특히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장의 저변확대가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청소년, 성인태권도장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인에 맞는 기술교육과정이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태권도 기술의 변천과정을 연구 개발하여 성인, 청소년에 맞는 태권도기술의 전문성 확보와 지침서, 역사서가 필요하며 위와 같이 앞으로 개발해야 할 연구물이 이 기초자료를 통해 재고(再考)¹⁴³⁾되고 더 나아가 태권도 역사성, 정통성 확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2) 대한태권도협회(2021). 전국태권도장 등록도장 현황.

143)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참고문헌

- 강익필(2021). 태권도 품세의 완전한 이해. 서울. 다락.
- 강원식, 이경명(1999). 태권도 현대사. 보경문화사.
- 국기원(2014). WTA 태권도교본 기본교재 보고서.
- 국기원(2015). 태권도 9개관 역사자료집. 태권도 그랜드마스터 초청기념사업보고서.
- 국기원(2011). WTA 교육프로그램 발표 및 공청회. 서울. 레인보우북스.
- 권규리, 유정애(2022). 태권도 선수의 온라인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우승 경험 탐색. 국기원 태권도연구, 13(2), 11-20.
- 김대식, 김광성(1987). 태권도지도이론. 서울: 나남.
- 김영선(2014). 최초의 태권도 교본에 관한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5(2), 1-24.
- 김영선(2018). 현대 태권도의 원류, '오대관'의 형성과 사적(史的) 의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교본 품세편. 서울. 삼일서적.
-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 대한태권도협회(2021).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도장 현황.
- 무카스 추모영상(2017). 태권도를 빛낸 故이교운 원로. 무카스. 2017.05.07. <https://www.youtube.com/watch?v=YtdIDL-prz0>.
- 박세현(2015). 초창기 태권도교본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0(3), 127-144.
- 서성원(2007). 태권도 현대사와 길동무하다. 서울: 상아기획.
- 서성원(2012). 태권도던. 서울: 상아기획.
- 서성원(2014). 이종우 태권도 원로의 생애. 무카스. 2014.07.31. <https://mookas.com/news/13897>.
- 서성원(2017). 故이교운 원로의 태권도 삶과 행적. 태권도박스 미디어. 2017.05.14. <http://www.tkdbox.com/%ec%9d%b8%eb%ac%bc-%e6%95%85-%ec%9d%b4%ea%b5%90%ec%9c%a4-%ec%9b%90%eb%a1%9c%ec%9d%98-%ed%83%9c%ea%b6%8c%eb%8f%84-%ec%82%b6%ea%b3%bc-%ed%96%89%eb%b3%b4/>
- 손천택, 서성원(2017). 외길 70년 현대 태권도의 기틀을 가진 엄운규. 대한미디어.
- 양택진(2022). 진흥재단, 태권도 교본 시대별 비교분석 연구 착수. 태권도신문. 2022. 07.23. <http://www.tk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79>.

- 엄재영(2020) ‘금수저’ 이원국, 어떻게 무술도장을 개관할 수 있었을까? 무카스. 2020.07.06. <https://mookas.com/news/17534>
- 유정애(2017). KTA 태권도장 표준교육과정 해설서.
- 이경명(2010). 청도관 초대 관장 이원국, 파란만장한 태권도 인생. 무카스. 2020.10.29. <https://mookas.com/news/10804>.
- 이교윤(1965). 태수도교본. 서울. 토픽출판사.
- 이승민(2011). 자산(自山) 안확의 생애와 체육사상.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신흥인쇄공사.
- 이호성(2007). 한국무술 미대륙 정복하다. 초판본.
- 엄재영(2020). 무덕관 창시자 황기의 무예경력은?. 무카스. 2020.07.22. <https://mookas.com/news/17554>.
- 임신자와 2명(2019). 전통태권도 기법체계구축을 위한 ‘화수도교본과 태권도교본의 기법체계 비교분석. 한국무예학회, 13(3), 31-55.
- 장용규외 8명(2017). 중, 고교생을 위한 태권도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발서.
- 조준호(2008). 광복이전 인천체육 변천사. 한국체육사학회지, 13(1), 15-30.
- 태권도신문(1998). 이종우 인터뷰.
- 한국무예신문(2011.6.16.) 태권도 역사 바로보기.
- 한국스포츠개발원(2017).
-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계량문화사.
- 황기(1970). 수박도 대감. 서울: 한우리출판.
- 황기(1992). 한국전통무도 수박도(手搏道). 서울: 사단법인 대한수박도회 무덕관.
- 황옥철, 김정수(2008) 한국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천사. 한국체육사학회지, 1(3), 1-14.

발행 오응환

기획 김태균(국립태권도박물관장)

나승재(국립태권도박물관 학예사)

발행처 국립태권도박물관

(55547)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1482

tel. 063-320-0114 fax. 063-320-0032

인쇄 도서출판 유한사

©2022 태권도진흥재단·국립태권도박물관

이 자료에 실린 사진과 글은 태권도태권도진흥재단·국립태권도박물관의 동의 없이 게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태권도박물관
National Taekwondo Museum